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土) 本紙朝夕刊十面 編輯人 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有色人種侮辱言辭로 全印度民衆激昂

『打倒못솔리니』와『에』國援助絶叫

聖雄간듸氏도敢然奮起

聖雄간듸

【電通孟買廿六日發】伊에紛爭에 關하야 伊太利 못솔리니首相이 發表한 有色人種을 侮辱하는 言辭를 行한것은 印度三億의 有色民族을 激昂케하야 바야흐로 印度全土는 打倒못솔리니의 絶叫가 民衆間에일어나 『印度는 伊에紛爭에 超然할수 업다』고主張하고 잇는데 特히注目할것은 오래동안 沈默을직히고잇든 聖雄간듸가 激昂한것인데 간듸는全印度民衆에게 웨처 에디오피아를 爲하야 赤十字에 義捐金出資 印度民衆은 못솔리니 首相의 高言을 看過할수업다 印度는 假令英國의 治下에잇스나 人間의 一員으로 非武力的으로 他國을 援助할 完全한權利를 갓고잇다 고力說하엿다 이리하야 伊에紛爭은 單純히 兩當事國의 問題를떠나 白人對有色人의 問題에까지 發展되려하는 形勢를 示하야 同紛爭의 推移는 益益重大視되엿다

伊에紛爭에서—人種戰으로!

英國도出席

【電通倫敦二十六日發】英國政府는 二十六日 아베놀總長에게 對하야 伊에紛爭에 關한 聯盟理事會出席을 應諾한다는 旨의 回答을 發하엿다

英國政府 局面打開策協議

【倫敦二十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 開會를 압두고 英國政府는 巴里、羅馬兩駐箚大使를 通하야 佛伊兩國政府에 局面打開策을 協議하고잇는데 理事會에서는 紛爭의 全面的審議를 主張하야 될수잇는대로 聯盟原則의 貫徹을 期할 方針인데 英國政府로서는 못솔리니首相이 理事會開會前에 어떤 和協手續에 出하는것을 期待하고잇다

和蘭後繼內閣 베氏組閣委囑

【海牙二十六日發聯合】和蘭의 윌헬미나女王은 二十六日 카토릭黨院內總務 알·베르제博士에게 될수잇는대로 마흔 政黨을 基礎로 後繼內閣을 組織하도록 委囑하엿다 同博士는 이數日中에 決定하야 女王께 回答할러이다

英佛兩國의恐怖는 有色民族의蜂起

伊에紛爭은人種戰의發端이라고

伊首相의熟慮를要請

【倫敦廿四日發電】伊에紛爭處理에 關한 聯盟理事會는 드듸어 來廿九日에 開催할 모양 인데 英佛兩國政府는 右開會期日까지의 數日을 利用하야 다시 한번 伊首相에게 對하야 못솔리니 最後的調整工作을 試하자고 意見이 一致되엇다。못솔리니首相이 에디오피아保護領化의 要求를 이제 새삼스리 撤回치 안흘것은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英佛兩國이 一方으로 聯盟規約第十五條의 援用을 暗示하면서 最後的努力을 繼續하고잇는것은 伊에開戰이 直接 導火線이되어 阿弗利加、印度其他 東洋諸國有色人種의 民族的蜂起가 되것을 極度로 憂慮한것으로 클락英大使는 廿三日의 라발佛首相과의 會見에 際하야 特히 이點을强調하고 『萬若 伊에開戰이 되면 重大한 反響을 興할 憂慮가잇다』는旨를 率直히 披瀝하엿다 一方 二十四日 行한 英國閣議에서도 某某閣僚는『伊에戰爭이 世界的인 民族戰爭의 發端이 되지 안토록 英國政府로서는 此際에 愼重善處하지 안흐면 안될러인데 特히 日本政府에 對하야 부질업시 伊에紛爭을 刺戟함과如한 言動을하지안토록 要請할것이다』라고 提案하엿다、이는 杉村大使의 失言問題以來 伊太利各地에 反日感情이 激化하야 伊太利 北部各大都市에서는 反日 示威運動까지 大大的으로 行하야 問題의 一層紛糾擴大가 憂慮되게된 때문이다 그리고 廿四日의 閣議에 聯盟特別 理事會에 出席할 英代表 이든 無任所相은 壽府에 到着한 後에도 表面 積極的인 工作을 하지 안코 다만 英國으로서는 聯盟의 決議事項을 絶對支持할 用意가 잇다는 旨를 理事會에서 明白히 하는데 끈치라는 訓令을 밧고 出發하엿다

經濟的讓步로 伊에紛爭解決?

英佛大使의强硬主張奏効

【電通倫敦二十六日發】當地官邊의 觀測한바에依하면 드라먼드駐伊英大使는 찬브랑駐伊佛大使의 主張을支持하야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하야 諒解가成立되여 伊太利政府에對하야 에디오피아에對한 廣範한 經濟的 利權은 承認하나 政治的 併合은 中止하라고 强硬히 主張한것이라고 信한다 一方 에디오피아 方面으로부터 英政府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에디오피아政府도 이미對伊 經濟的讓步에關하야는 不得已하다고 생각하고 伊太利側도 右情報에 依하야 充分滿足하리라고 豫想되는데

經濟提携에關해 日中代表懇談

【天津廿六日發聯合】北中의 日中經濟提携에 關하야 第一步로 二十五日夜 天津英國租界 中國銀行에서 日中財界代表者가 會合하야 懇談會를 開催하엿는데 日本側에서는 中日實業總裁 兒玉[illegible] 協部氏 三井 [illegible] 代表者와 酒井參謀等이 出席하고 中國側으로부터 大陸、中南、鹽業、金城銀行代表 數名이 出席하야 懇談을 거듭하엿다

人의 資格으로 [illegible] 原則으로는 承認되엇스나 [illegible] 求하는바와가티 大幅으로하지 안코 一%式이 될것이다

美濃部博士問題 首腦部會議서決定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事件의 司法處分은 二十六日 小原法相이 北海道旅行으로부터 歸東함에 따라 依然 表面的問題가되엇는데 法相의 意向은 可及的 速히 社會의 疑惑을 一掃하고자 하야 檢察當局도 부질업시 時日을 遷延하고만 잇슬것이 아니라고 近近 大審院檢察廳에서 首腦部會議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그時期는 아마 三十日이나 三十一日頃이 될러이다 이리하야 檢察首腦部의 意見을 綜合하야 起訴與否의 斷案을 하고 具申狀을 作成하야 司法大臣의 決裁를 求할러이다

外交部長은 徐謨氏代行

【南京二十七日發聯合】汪精衛氏는 病氣療養中 行政院의 事務는 孔祥熙氏를 代理委員長으로 處理케하기로 決定하엿다 外交部事務는 外交部政務次長 徐謨氏가 代行하기로 되엿다

크레디트統制案 兩院協議會付議

【電通華盛頓廿六日發】米國上院은 二十六日 記錄投票를 行하지안코 政府의 크레디트統制强化를 目的한 銀行法案을 可決하엿는데 同法案은 兩院協議會에 付議키로 되엿다

米三億弗增收案과 下院財政委員長談

【電通華盛頓廿五日發】米國下院財政委員會는 目下 財政改革案의 作成을 急히 行하고잇는데 도톤委員長은 二十五日 如左히 말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은 財政改革에 依하야 三億弗의 增收를 求하고잇는데 民主黨委員은 二億弗의 增收를 圖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그리고 法

에國은끗까지 和協手續反對

【아디스아베바二十六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二十五日새로 通牒을 提出하야 和協仲裁手續의 繼續을 主張하엿는데 에디오피아政府는 右要請을 拒否하고 어데까지 規約第十五條에 基하야 聯盟理事會에서 紛爭의全面的處理를 行하기로決定하엿다 헤루이外相은 二十六日 右方針을 宣明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는 和協委員會의 續行을 拒否한다 和協委員會의 再開案에對하여는 適宜善處하도록 주네브 駐箚代表에게 이미 訓令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는 아직聯盟內에서 紛爭을處理할수잇다고確信한다

卅一日又는八月一日 特別理事會開催

아總長、招請狀을發送

【電通壽府二十六日發】아베놀聯盟事務總長은 今日 聯盟理事國全部에 對하야 來七月三十一日 或은 八月一日부터 特別理事會를 招集하겟다는 旨를 電報로써 通達하엿다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聯盟事務局은 二十六日 아베놀總長의名義로 特別理事會에關한 招請을 理事國政府에 通達하엿는데招請要旨는 左와如하다

一、五月二十五日의 理事會決議에基하야 來七月三十一日、又는八月一日午後五時부터 理事會를開催하고 伊에兩國紛爭處理에對하야 協議를遂하려한다

一、正確한 日字는 理事國政府의 希望에 基하야 決定할러이다

【羅馬二十六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來聯盟理事會에代表로 아로이지男을 出席케하기로 決定하엿다

英國政府는 卅一日開會希望

【倫敦二十六日發聯合】아베놀總長의招請을 接한英國政府는 七月三十一日理事會의 開會를 希望한다는旨를 卽時 聯盟事務局에 通告하엿다

聯盟理事會에 伊代表出席

【電通羅馬二十六日發】伊太利政府는 아베놀事務總長의 招待에 應하야 來三十一日 又는八月一日

第六次中全會議 九月下旬頃開催

【南京廿六日發聯合】二十五日行한中央黨務 委員會議에서 第六次中國全體會議를 來九月下旬에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南京二十七日發聯合】國民政府中央要人의 談에 依하면 六中全會에 對해서는 近近 中央秘書處로부터 正式으로 通知될러인듯 大體 開會期日은 來九月 廿日頃일것이다 昨年十一月 五中全會開會後 十個月 그間黨務、政治、軍事、外交、財政、建設等에 相當한 伸張이 잇섯스므로 此等報告를 基礎로 各委員의 意見을 斟酌하야 國政全般에 亘하야 一大刷新을 할必要가 잇다고 確信하고잇다

舊韓末年

新聞人淪落記(下)

山窮水盡·歌哭亦難?

民世學人

×

蕭滄 吳世昌氏 漢城旬報當年의 少壯記者이엇고 萬世報 大韓民報當時의 首腦者로 庚戌變局以後에는 天道教에 全力하더니 己未에는 義菴孫秉熙氏와 盡力한 一人이엇고 目下에는 書籍와 古籍으로 自娛하는편이다 天道教中央委員會以來의 元老이것은 世人이잘아는터이다。一愚南宮濬氏 皇城新聞後期의 要人으로庚戌의後에는 中央學會 同中央學校等에 盡力하엿고 己未以後甲子가을까지는 朝鮮日報의 實際의主宰者이엇다 以來 朝鮮 教育協會와의 깁흔關係도 一段거두고 方今靜養中인것이다。崔昌植氏 皇城新聞 後期의 少壯記者 이든것을 아는者는 잘안다 庚戌以後 前五星學校에서 教鞭을잡더니 朝鮮史에關한 어느演述과 不穩唱歌란者에 座하야 圄囹一年의 厄을보앗고 己未에는 上海에 나가奔走하더니 往年거긔에서逮囚되어 京城에서두번재 圄囹의몸이되엇다 方今은 그第二故鄕된 南中方面에 轉輾하고잇다。

×

雩岡梁起鐸氏가 庚戌直後例의 新民會事件으로 始作하야 世稱 宣川事件의 主要分子의 하나로 五六年間 圄囹의몸이 되엇고 以來 滿洲에서 辛勤한 生涯를하더니 己未에는 天津서잡히어 巨濟島에 居住制限이 되엇고 풀리자 東亞日報의 編輯監督의 한사람이엇섯고 그後다시 吳佩孚를좃어 北中國地方에 放浪하고 잇다 林蚩正 安泰國兩氏 隆熙三年 李在明事件에는 共謀의嫌疑를닙어 鐵窓에서 呻吟하엿섯고 宣川事件 當時에는 主要人物의 한사람이엇든 安泰國氏는 己未에는 滿洲로부터 上海에가서 旺盛한意志를 보엿스나 未久에 客死하엿고 林蚩正氏는 京城西大門內에서 鑛山事務로서 世인低昂하더니 逝世한지 벌서五年이다 丹齋申采浩氏 庚戌의後에露領에 나아가 靑 海潮新聞을 石版으로刊行하야 活字設備 업슴을慨嘆도하고 흥은 南北中國에 放浪하야『最恨山窮水盡處』任情歌曲亦難爲』를 悲嘆도하며 己未의지음 上海에서 某新聞을 一時 主宰로北平方面에서 그尖銳한 評談과 朝鮮史의 研究로 多雜한 生涯를 보낸것다 現在에는 某黑色事件에 關聯되어 大連監獄에 呻吟함이 多年이니 아즉도 數年의期限이 남엇다 往年그의舊稿『朝鮮史』와『朝鮮上古文化史』가 朝鮮日報紙上에 連載되어여래 出版되지못하엿스나 各界識者의引用하는바되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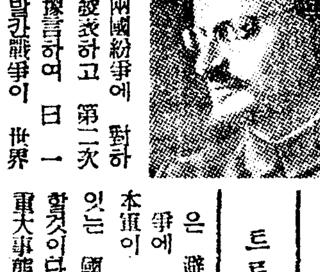
汕耘張道斌氏 大韓每日의論說記者이엇더니 庚戌以後 北方에放浪하엿고 돌어와五星學校의 學監을 하더니 己未以後에는 雜誌를 主宰도하고 主로朝鮮先民의 偉人傳記를 쓰기에힘썻섯다 現在에도 平壤에隱居하며 朝鮮史研究에 盡力하는중으로 들린다。菊初李人稙氏는 會速政治的 코ー쓰로 달어난 者이나 그 朝鮮新小說史의功勞는 泯沒바이니다。皇城日報末期에 南宮濬氏잇스니 庚氏以後 唯一書舖를 마련 書籍을 팔므로 市에隱하더니 方今生活에 奔忙中이다 李鍾一氏 帝國新聞을 辭한後 晚年에는 天道教月報社長으로 역시 言論關係의 事業을 못닛고잇섯고 己未에는 天道教系로 三十三人의 한사람이엇더니 丙寅여름에 逝世하야 現代新聞人의 鄭重한 吊辭를 밧든바이다 鳳山李鍾麟氏 大韓民報의 少壯論說記者이엇더니 庚氏의變局 預備檢束되지 多日에 釋放됨새『太學當年官博士』云云의『今日罪書生』의 七絶을 남기어 成均博士以來 漢詩家的技倆을 보엿고 己未에는 四十七人中의 한사람 이엇섯다。以後 雜誌開闢社의 首腦者로 되엇스며 目下 그公的生涯는 역시世人의 잘알바이다 海外의部를 一瞥하면하와이國民報(新韓國報의後身)의 主宰者 이든 又醒朴容萬氏 己未以後 上海를떠나 北京에서 奔走하더니 往年己巳에 거긔서横死하엿고 大東共報의 發行者가 되든 李剛氏는 一時故土에歸臥하엿드니 目下 南洋方面에 商業的 放浪中이라고 傳한다 英國人 裵說氏(乙巳時代·大韓每日의 發行者로 統監政治의 毅然한 敵國이엇다 隆熙二年中 某事件에 座하야 上海에가서(治外法權關係로)數週間逮囚되엿섯고 돌아온後同發行權은 그의書記 萬咸에게로 變更하엿다 隆熙三年봄 京城에서 客死하야 楊花津에 葬할새 韓人男女 눈물로보낸 者 累萬이엇섯다 裵說氏는 그 瞑하엿슬는가?

×

昔者 中宗己卯의禍에 東皐金湜 善山謫所에서 客에게그릇한바되어 亡命하야 智異山中에向할새 途中에서 [illegible] 數日、그而且非理임을 슬퍼하야 高陽院의 東北山麓 바위우에 一絶을써서 絶命詞를 삼으니『日暮天含黑 山空寺入雲 君臣千載恨 何處有孤墳』失意人의 淪落한 心境! 古今으로써 탓할수업다 끄레부치어 이글을 마감한다。

伊에國紛爭은 世界戰爭前奏曲

트로츠키氏豫言



【월소우二十六日發聯合】볼쉐비키革命當時트로츠키氏는 스탈린黨書記長과의 抗爭에서 敗한 以來 亡命生活을 繼續하든中 過般諸威로 赴하엿는데 二十六日 오래간만에 沈默을 깨트리 伊에兩國紛爭에 對하야 所信을 發表하고 第二次世界戰爭을 豫言하여 曰 一九一二年의 발칸戰爭이 世界戰爭의 前奏曲이되것과 同樣으로 今回의 伊에兩國의 紛爭은 第二次 世界戰爭의 前奏曲이다 一旦東阿에 戰端이 開始되면 全世界는 새로운 辨級、새로운 同盟人으로 分裂하야 三年이 지나지못해서 新世界戰爭이 勃發할것이다 勿論 世界大戰과 同時에 日本蘇聯兩國間의 紛爭은 避하기困難하다 日蘇戰爭에 잇서서는 當初에는日本軍이 精銳한 武器와 統制잇는 國軍에依하야 成功을收할것이다 그러나 日本國內에 重大事態가 勃發하야 戰爭은 結局 日本의 敗北을 招來할것이다。

『米는善隣主義와 中立政策을固守』

新聞記者團과의會見席上에서

루大統領平和策宣明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六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잇서 米國政府의 『善隣平和政策』을 宣明하고 伊에兩國의 紛爭에 關한方針을 述하엿다 記者團으로부터 米國政府는 世界平和維持에 對하야 如何한 對策을 講究하것느냐는 質問이 나온데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曰 平和維持策은 大局的으로 自國에 關係업는 諸特定한 事件에 對應치 안토록 모든 努力을 다할 方針이다。 그리고 記者團으로 부터 第二의 中立政策은 에디오피아問題를 包含한것이 아니냐 하는 質問을 提出한바 루즈벨트大統領은 卽座에 肯定하여 曰 勿論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하여도 中立政策이 適用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는 多少例外的性質을 띄게되는바 米國政府는 中立政策을 堅持하는 同時에 全般的으로 世界平和의 問題도 考慮하고잇다 그리고 參謀總長마크아더將軍이 全比島聯邦의 最高軍事顧問이되여 마닐라에赴任하리라는 報道가 盛傳되여잇는바 右報道에 對한 記者團의 質問에對하야 大統領은微笑를띄며 말하기를 比律賓政廳이 마크아더將軍의 赴任을 希望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英國大使와會談 라발佛首相

【巴里二十六日發聯合】라발首相은 二十六日朝 英國大使클락氏와 會見하고 特別理事會에 臨할 方針에 基하야 協議하엿다 但 右會見에서는 아모런 決定에 到達하지못하고 라발首相이 壽府에 出馬한後 形勢에 應하야 對應策을 適當히 處理하기로 되엇다

宇垣總督歸京

渡東中이든 宇垣總督은 令孃及矢野秘書官同伴 廿七日 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三週間만에 歸京하엿다

人事·集會

▲朴元信氏(高陽郡漢之面長)水害人事次來社

酷暑下의伊兵 日本麥酒로滌暑

【大阪電話聯合】소말릴란드 二十萬의 伊太利將卒은 못솔리니首相에게 鼓舞되야 士氣를 晝夜로 올리고잇는데 伊太利本國에서는 打倒日本을 絶叫하는 가말든가소말릴란드 沙漠에서는 日本의 麥酒가景氣조흔 거품을뿜고잇다 몸바사港으로 向한 麥酒는 昨年上半期에 겨우 五千二噸이엿든것이 今年同期에는 約六倍의三萬二噸(十二萬三千三百六十本)이라는 大量輸出이 잇섯다 이것은 同方面의 酒店이 高價의 歐洲品보다 低廉하고맛조흔日本麥酒에 着眼하게된닭으로 日本內地에서는 實質가조치안흔 此際 伊에紛爭으로 麥酒會社는 意外의 收入을어게되엇다

八面鋒

◇英은「建艦宣言」으로、米는「安全感均等」으로、새尺度자랑이야단。

◇何國을 勿論하고 少量에滿足한다고、自進宣言할 國家가잇슬는지。

◇『感』에依한 安全의 尺度를 各其主觀에 따라서 재인다면 國際的尺度는 무엇으로 삼을고。

◇諾威에 亡命中의『트로츠키』曰 伊에紛爭이 싯그럽게되면、不出三年에 第二世界大戰이 된다고。

◇三年餘裕를 두고 하는말이니 非常時도 그만치 延長된다는 말인가。

◇장마끄테 日氣가 乍晴乍雨로 종작할수업고 宇內의 低氣壓의 濃淡離合이 無常하니 天下는 嗚呼定코。

本紙夕刊八面

キング臨時增刊 面白づくめ號

賞品大奮發!!
懸賞だけでも合計五種
①一千円進呈犯人探し大懸賞 ②五千人當選特別大懸賞 ③詰將棋 ④詰碁 ⑤聯珠の大懸賞
見逃しては御損!!
評判は評判を生み到る處大騷ぎ!
小說、講談、落語、實話、漫談、漫才ばかり!
滅茶苦茶に面白い大傑作二十八!
●武勇あり ●戀愛あり ●俠客あり ●探偵あり ●出世あり ●滑稽あり
面白い!面白い!
●體裁は雜誌ですが、內容は立派な單行本です。
大賣行
驚いた大册! 全部讀切り! 大奉仕特價五十錢。
賣切れぬ中、お急ぎお求め下さい。
物が素晴しい證據ず 今スグ書店で實物を御覽下さい

皮膚チヤージー(피부 차ー지)
滲透療法의 眞髓!!
드러지안코、알코지안코며 皮膚의深部에滲透하야 內部에숨어잇는 黴菌이며 寄生虫에强히作用함으로 근질근질한皮膚病、무좀、땀띠、옴、음부습진、버짐、여드름、버룩、모기、빈대等의 毒虫의害、面刀後 거츠름等에 實로 効力이잇습니다
三十錢、五十錢、一圓 全身用徑用大瓶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全國有名各藥店에잇슴
근질근질한皮膚病·무좀·말은옴·음부습진·땀띠等에 한번試用하시요

市內非常時食糧在庫 五日分糧에不過

這般水災當時全市孤立을假想調査 京城府對策을講究

지난을축년(乙丑年)대수해이후 만십년만에 다시큰수해의 침범을받은 경성은 이번수해를지나고나서 큰교훈(敎訓)을 다시하나 밧게하얏다

즉 이번에 한강의범람적 증수와 문산(汶山)파주(坡州)일대의 침수와 경인가도소사 부평(京仁街道素砂富平)일대의 침수와 경부연선의수해로 경의선(京義線)이끈어지고 경원선(京元線)이 두절되며 경인선과 경부선도 위험에빈하야 거의 끈어지게되얏섯다가 다행히 웃덜이속히들어서 물이빠지기때문에 다행히경성은 고립에 빠지지아니하얏스나 만일 비가조금만 더계속되얏고 물이 느리게 빠젓드면 경부경인의 두철도 끈어저 경성은 룡우에뜬 섬(島)가티되엿슬것인바 이와가티 경성이 고립되든경우 재난의 비상시에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팔만여호 사십만시민의 식량(食糧)이 문제이므로 경성부 권업계(勸業係)에서는 곳경성시내의 재고미(在庫米)를 조사한결과 경성에는곳밥을 지어먹을수잇는 백미(白米)가 오천석밧게 업슴을 발견하고 은근히 크게 초조 하얏다한다

현재 경성시민의 밥미소비량(飯米消費量)은 매인당 일년평균 일석일두로 일개월에 구승이합이고 하루평균삼합강(三合强)이어서 전시민의 소비량이 하루 일천백석이므로 이오천석의재고미란것은 결국나흘만의 식량만이될뿐이오 기타 벼(正租)는다소잇스나 건조(乾燥)가 아니되것과 발전소가 위험하야 발전이 불능될 경우에는 용정(舂精)을 할수업슴으로 벼는다소잇더래도 소용이 닷지못하는 까닭에 결국 닷새재부터는 식량결핍의 큰공황을 이르키겟스므로 여긔대한 대책을세우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론는업는 예산으로 창고(倉庫)를 지여막연히 식량을 저장하고 비상시를 기다릴수도업고 그러타고그대로 망기할수업서서 엇더든별한 대책을 강구하는중이라한다

對策은講究中 府勸業係長談

이에대하야 경성부 도원(稻垣)권업계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사실 이제 말슴을 하니까 말이지 큰문제입니다 부산(釜山)이라거나인천(仁川)가튼곳은 상취인(商取引)의 관계와가타 여러가지운수관계등으로 항상 다수한재고미를 갓게되니까 문제가 업지만 개성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몰라그런지 수해현지에서는 분수이외의 고가(高價)가 나타낫습니다 이런경우에 세민들의 정상을 생각하야 엇더한 대책이업시는 뜻밧게 다치는 재해비상시를 막을수업것지요 대책을 강구는 합니다만은 아즉 엇더타 말할수는업습니다

土兵內通事件 漸次로擴大

近藤林業公司長取調

【哈爾賓二十六日發聯合】북만재계에 유력자로서 알리워진 근등림업공사(近藤林業公司)의 토병내통사건은 그후 당지 헌병대본부에서 그공사의 고야(高野)지배인이하 고급 사원들과 각자경단장을 소환취조중 이든바 헌병대 당국에서는 확증을 가지고 잇다고한다 이십륙일 오전아홉시에는 문제의 근등씨를 임의 출두형식으로 불러서 취조를 개시하엿는바 근등씨가 부하의 매국적(賣國的)행위를 알고 이것을 비밀히 지령까지하엿는지 동씨는 북만주에 잇서서 재계의거두인마큼 이사건의 진전에 잇서서 각방면에 큰센세이슌를 이르키고 잇다

某國水兵無錢取食

지난이십륙일 오후 여섯시경 부외 로량진에잇는 일본료리점 룡봉정(龍鳳亭)에 현재 인천에 입항중인 모국군함 승조수병(乘組水兵)두명이 동여한사람을 다리고 들어와 오후 여덟시경까지 두시간 동안에 륙원륙십전어치의술을 먹고는자긔들의 동관을 다리고온다고 빙자하고한번나간후 종무소식이라하여 이뜻을 경찰에 계출햇스므로 방금 엄탐중이라한다

江原道水災被害 人命만二十九名

【春川】강원도내의 이번수해의 피해로 이십륙일까지에 판명된것은 사자십삼명 부상자십명 행방불명자륙명 합이십구명의 인명손상이 잇섯스며 가옥의 피해는 류실되것이 십륙호 전괴되것이 삼십사호 반괴되것이 륙십삼호 침수가옥이삼백이십사호에 달하며 말(馬)소(牛) 도야지(豚)등의 즉사와류실이십두라한다

또 농작물의 피해는 전답의 류실과 매몰이 일백칠십사정보 단(段)이며 침수되것이 일백구십륙정으로 농작물의 피해액은 일만칠천오백오십륙원 가량이다

또 도로의 류실과결괴되것이 일백이개소에 그피해액이 사천오백구십오원 교량이 이십륙개소가 류실 또는결괴되엿고 그외에 목재가 류실된 피해가오천륙백여원에 달한다고한다

奈曼旗襲擊士兵 討伐隊가擊退

【新京二十六日發聯合】내만기(奈曼旗)습격사건에 관한 개로(開魯)경찰서로부터 몽정부(蒙政部)에 드러온입전에 의하면입만트벌대는 이십륙일 새벽부터 수차돌격을 결행하야 오전여섯시오십오분 팔선동(八仙桶)을도로빼아섯다 동병들은 수십개시제를버리고 서남방으로 퇴각하엿슴으로 상원(上原)부대는 추격하는중이다

破獄常習强盜犯 今曉京城刑務所를脫走

新義州서脫獄햇든前科四犯 市內各警察署猛活動

오늘 새벽에 시외공덕리(孔德里)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죄수한명이 탈옥도주하엿다 그죄수는 평북선천(宣川)출생 강도 절도 전과사범 허명호(許明浩)(三○)로 그는절도와 강도죄로 재작년 구월칠일에 신의주(新義州)지방법원에서 징역칠년으로확정되여 복역중에 그달 이십칠일에 신의주형무소에서 탈옥도주하야 자최를 감추고 도라다니며검사에게 협박문도 보내고다시 강도짓을 하다가 마츰내붓잡혀서작년 팔월삼십일일에다시 평양지방법원에서 강도상인죄(强盜傷人罪)로 징역팔년의 판결이확정되여 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작년십이월륙일에 경성형무소로 이감되여와서 이날까지전후 십오년의 징역을 살아가든터인데 이십칠일 새벽세시로부터 네시사이에감옥담을 너머서 어데로인지도주해버린것이라한다 경성형무소와 시내 각경찰서에서는 방금각처로 수사의 그물을펴고 그범인을 찻는중이다

"再犯이나 업섯스면" 刑務所長談

작년팔월이십사일에 벼돌공장에서 죄수한명을 노첫다가 결국 붓잡앗는데 마일년만에 또이번일이 생겨서 세상을 씨그럽게 하게된것은 미안하기 짝이업습니다 그죄수는 특별히 독방에두고 감시를 엄중히 해오든터인데 탈옥잘하기로 유명한 죄수인까닭인지 그만 도망해버렷습니다 무엇보다 념려되는것은 탈옥하든길로 또 어떠한일을 저질지 안흘가 하는것이다

獨房門을破壞 天井에登攀

◇巧妙한脫走方法

그의 탈주한 경로를 드르면 그가 수용되여잇든 경성형무소제삼의(第三獄)독방에서 감방 문을 부시고 감방밧그로 나가서 거기서 철책(鐵柵)을 타고 천정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들창으로 나가서 차양(遮陽)으로 나려서 비로소 완전히 감방밧그로 나가게 되야 작업장 목재둔곳으로 가서 두간자리 나무판자를 가지고 동쪽벽돌담에 걸처노코 그리로 타고 담우로 올라가서 교묘히 탈주를 해버린것이라한다

反戰日警戒

【咸興】함흥경찰서에서는 오는팔월일일 반전(反戰)데―를 압두고 이십오일부터고등계원총동원으로 시내요처마다상엄한경계진을펴고잇다

女工十四名罷業 賃金引上을應諾

【咸興】흥남제련소(興南製鍊所)에서 광석제단(鑛石製團)작업에 종사하는 녀공십사명(전부 녀공)은 지난이십삼일아츰부터 출근하지안코 돌연파업을 단행하엿다는데 그내용인즉 본래제련소는 흥남조질회사 보담도오히려 노력이더만히 드는데 임금은최고일원에 최저는오십오전밧게안됨으로 항상불평을 가지고잇든바 지난이십이일 회사당국으로부터 임일간 책임개수 일천이백개식 광석제단을 오십개식더증가하여 일천이백오십개식제단하기를 언명하엿든바 전부터 불평을 가지고 잇던 녀공들은 단연 파업을 단행한것이라는데 회사측에서도 임금의 저렴함을 인정하고 정확치는 안흐나 약간 인상하여주기로 결정하엿다고하며 파업은 일량일중에 해결하리라고한다

相助會名目으로 罷業基金을貯蓄

連絡嫌疑잇는左傾分子續續檢擧 鎭南浦日鑛罷業事件後聞

【鎭南浦】진남포 일본광업제련소직공과 인부일천삼백여명이 지난십삼일 오전여섯시부터 회사측에 임금오할인상외 십이조의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돌연총파업을 단행하엿다가 마츰팔일만인 지난이십일에 결국오십여명의 희생자를 내이고 무조건취업하엿다함은 당시본보에 상세히보도한바어니와 그후 진남포경찰서 고등계서는 일층긴장되여 내리는 장마비를 무릅쓰고 파업단측 배후에는 엇던비밀결사나 잇지안흔가? 혹은 시내좌경분자들의 책동이나 아닌가하여 파업단측에서 주모자로 인증되는 제련부직공 삼십여명을 검거인치하고 저간 극비밀리에 엄중한 취조를 계속중이든바 용광소에서 일하는 제련부직공 백여명은 약 삼개월전에 상조회(相助會)를 조직하고 표면으로는 교양긔관으로 하고 내용에 잇서서는 회비를 모와 그 회의 긔본금을 적립하여 가지고 일단 파업이 잇슬때는 지구전(持久戰)을 계획하여 오든것이 판명되여 총지휘자로 인증되는 오상근(吳尙根)과 상화조인부 김태성(金泰成)을 검거하여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파업단측에 이와가튼 조직체가 잇섯슴을 알게된 경찰당국에서는 일층긴장되여 그들의배후에는 부내에잇는 좌경분자의 엇더한 책동이 잇지안햇는가 하여 부내에잇는 좌경인물들을감시하는일방 지난 이십사일에는 장사차로 안주를 향하야 발동선을 타고가든 손협성(孫協星)을 추격하여 체포하엿다는바 사태가 장차엇더케나 전개될는지매우 주목된다고한다

파업단사건이 의외로 확대됨을 따라 평남도 경찰부에서 까지 대활동을 하는중 지난이십오일에는안천(岸川)고등과장까지 진남포에 출장하여 상세한 전말의 보고를듯고 총지휘를하는모

苔灘附近에는 浸水家屋廿戶

【黃州】지리한림우는 련일련야 사이업시오는중 지난 이십이일 오전삼시경부터 갑작이 퍼붓는비는 오후구시까지 계속되여 태탄교(苔灘橋)가 넘으며 태탄과 해주군 대거면 강정리(海州郡代東面江亭里) 일대는 수국화하야 일시 호안을 일우엇든바 다행히 인명과 가축에는 사상이업스나 이일간이나 교통두절이되고 다음과가튼손해가잇섯다한다

苔灘浸水家屋十三戶
海州郡代東面江亭里浸水家屋七戶
田畓破壞及農作物損害는 方今調査中

東星學院落成式

【平壤】평양부내 서성리(西城里)강촌(康村)동성학원(東星學院)에서는 원사를 신축하든중이준에 이르러 준공되여 금이십팔일오전십입시부터 동교에서 신축락성식을거행한다고 한다

金鑛坑內浸水로 鑛夫四名이溺死

定平金井鑛山에慘事

【咸興支局電話】이십륙일오후사시경에 함남정평군 부내면광덕리(定平郡府內面光德里)에 잇는 금정광산(金井鑛山)주식회사 소유의 광산굴안에서 굴벽이 문허저 침수되여 남포인부 사명이 나오지를못하고 물에잠겨 죽엇다는데 그들이 죽은 지점은 굴입구에서 일천륙백척을 드러가서 다시업호로 오백척을 드러간곳으로 소화팔년에 폐항(廢坑)한 그업헤굴에 벽이 문허저 물이 터저드러왓슴으로 시체를 찻기에 용이하지안이하야 동회사에서는 십마력(十馬力)한대 이십오마력 한대와 삼마력반한대를가지고 굴속의물을 뽑어내는중이라는데 사망한 인부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定平郡府內面興上 崔春烈(三七)
同面中興里 張承乾(二七)
同面同里 曹昌瑚(三一)
同面同里 金 準(二○)

枕軌橫死兩件 京釜線과咸鏡線서

이십칠일 오전세시반경에 목포(木浦)행 제삼백일호렬차가 경부선 신탄진 회덕간(新灘津懷德)부근을 진행하든중 조선인 남자한명이 선로안에 누엇다가 머리를 다치어죽엇는데 신원이 미상하며 이십륙일 오후다섯시십분에 함경선 수성라남(輸城羅南)간을 성진(城津)행 제일천구백십륙호 긔동차가 진행하든중조선아동한명이 선로안에 누어잇다가 부듸처 즉사하얏는데 조사한결과 경성군 룡성면 수성동(鏡城郡龍城面輸城洞)한공성(韓公成)의 장남한재국(韓在國)(一○)으로 판명되엿다

少年竊盜一團

이십칠일 오전 다섯시경에 시내 중학동(中學洞)개천부근에서 시내종로서(鐘路署)원의손에 림순성(林順成)(一○)외 일곱명의 소년절도단이 포진되엿는데 그들은모다 십여세의『꼬마』절도로서 시내각처를횡행하며 빈집을 전문으로 다액의 절도를 감행한것인데 목하 그범죄를 엄중주중이다

南浦億兩機里서 貨物船一隻燒火

損害가四千九百圓

【鎭南浦支局電話】진남포부억량긔리(鎭南浦府億兩機里) 대동강안에 정박중인 서진남포조일조(朝日組)소유선 조일환(三○噸)은 이십칠일 오전한시반에 발화하여 전소하엿는데 피해는 선체에 일천원과 휘발유 일천오백상자의 시가삼천구백원 합사천구백원이라한다 화재의 원인은 승조원은 상륙하고 업섯는데 화재당일에 항행중에 선바이충돌한 사실이잇서 그때에화재선의선등(船燈)이 떠러저불이옴마못든듯하다고한다

緣故權陳情

"迎門岡"占用의 不當運動者蠢動으로

이십륙일 오후에 평안북도룡천군룡천면중흥동(龍川郡龍川面中興洞)면협의원 김재걸(金在杰)씨와 김자항(金子恒)씨는 압록강(鴨綠江)가운데잇는 영문강(迎門岡)이라는 하천부지(河川敷地)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야 경성에와서 이십칠일아츰에 총독부로 토목과장을 방문하고 진정한바가 잇섯는데 이제 그내용을듯건대 전긔영문강은 지난대정삼년경에 그곳 주민과 중국인들사이에 계쟁이잇서오다가 십년전에 점용허가(占用許可)를 어더 이래 집도짓고갈(蘆)도심어서상당한 물건을 만들어노앗는데 최근에와서 이것의 점용권한이라것을알아 근처 모모 유력자들은 을뭄 상한 세민들의 뼈압흔 로력으로 어든바 연고권(緣故權)을 무시하고 자긔네 세력을 밋고 다시 점용권을 엇고저 책동하므로 이것을 밝히여 자긔네연고자에게 다시 점용을 하도록 해달란것이라 한다

水電工事場서 人夫一名慘死

【咸興】지난 이십일 오후팔시경 중남면 장흥리(中南面長興里)장진강수전 제일주항인부 박봉황(朴奉璜)은 항내신호 당를 번하고잇다가『케―지』가 오는것을 볼려고 머리를항외에내밀엇든바 그칼라『케―지』가 나려와서 머리를 따려 즉사하엿다한다

天氣豫報

曇驟雨

高氣壓은 本州 南海上으로부터 關西地方을 지나서 半島西岸에 突出하여 滿洲는 氣壓이 얏고 元山沖에는 小低氣壓이 잇다 琉球의颱風은 南海上에잇는 颱風의 中心은 七三○『미리』가량으로 依然西北西에 進行하고잇스나 아직어데라도 影響은업다 朝鮮은 흐리고 곳에따러 小雨가 잇다 또 雄基와 蔚山은霧、滿洲와 日本內地는 흐리고 關釜海峽은 天氣가 조흔것이다

昨日 最高 二十九度三分 最低 二十二度二分
今日 正午 二十七度六

運動競技欄

◇寫眞은 入場式光景

驟雨中開幕된 中等校陸上對抗

十八校百餘健兒勇躍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 主催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 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 第一日은 豫定과가티 二十七日 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參加校 十八校 選手人員數 百六十三名의 選手入場式을 마치고 百米競走로부터 開幕되어 驟雨中에 進行되바 이날 夕刊마감까지의競技成績은 다음과 갓다

【百米豫選】(A組)1李英鉉(一高)一一秒四 2鮮于將(平高) (B組)1金基泰(海州高普)一一秒六 2北野(京工) (C)1馬弁壽(平高)一一秒四 2內田(鎭中) (D組)1郭泳之(大邱農)一一秒一 2李應順(公州高普) (E組)1崔相弼(仁商)一一秒一 2尹錫泰(公州高普) (F組)1金克煥(養正)一一秒一 2芝田(群山中學)(本大會新記錄)

【千五百米豫選】(A組)1孫基禎(養正)四分三九秒三 2李炳憲(第一高普) 3高禹濱(高師) (B組)1安鍾澤(第一高普)四分四一秒六 2李泰遇(第二高普) 3李廣榮(養正) (C組)李敏弘(第二高普)四分三○三秒 2、金道鎭(第一高普) 3、金甲洙(公州高普)

【投砲丸決勝】金潤根(大邱農林)一二米九二 2、馬鍾國(養正) 3、白承旭(養正) 4、李東華(平壤高普) 5、高在源(大田中學) 洪熹(徽文高普)

徐廷權君의 『對戰者는?』

方今 歸國途上에 잇는 世界的拳鬪選手徐廷權君은 來三十日에 橫濱入港의 龍田丸으로 日本에 到着할터이라 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徐君은 十月에 比律賓『마닐라』에서 열리는 世界빤탐級選手權挑戰者決定戰에 出場하기로 이미契約이 成立되엿슴으로 八月과 九月에는 日本에 滯在하며 日本拳鬪聯盟主催의 三次歡迎試合에 出場하기로 되엿다한다 徐君歡迎戰의 對戰者로는 米國에서 徐君과 數次對戰하엿든 世界빤탐級第五位의 『리플프렌조』(比)와 比島에서 크게期待를밧고잇는『비네다』의 兩選手를 指定하고 方今比律賓『마닐라』에 交涉中이라 한다 그밧게 日本選手中에서는 大津選手(目下在比島)가 第一候補이며 小池選手(大日)도指目되고잇다한다

京城↓新京間마라손 朴君新幕을通過

金、鄭兩君은中止

【新幕】京城↑新京間二千六百里의長距離마라손을計劃하고 二十三日 午前十時에 京城을出發한 朴永善 鄭裁權 金華榮三君은 今般京畿道大水災로因하야 到處마다 橋梁과堤防이 破壞된險路를 走破하고千辛萬苦로 南川까지到着하엿스나 選手中鄭 金兩君은 너무도險惡한길에 負傷으로 痛이甚함으로 섭섭하게도南川에서떠러지고 朴永善君만 單獨으로라도 期於코目的地까지突破하겟다는悲壯한決心을품고 二十六日午前九時半頃에 本社新幕支局을經由하여 씩씩한步幅의鐵脚은 群衆들의 壯하다快하다는歡呼裡에 新幕街道를지나沙里院으로向發하엿다

中等野球豫選

京商4A 仁商2

大朝主催의 中等學校野球大會 朝鮮中部豫選 準決勝戰 仁川商業對京城商業戰은 二十七日十二時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球) 石井 藤井 將積 三氏審判 仁商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二로京商勝(閉戰二時二十五分)

投捕 (京商)國行―長野 (仁商)山口 長本―有川

得點		
京	000000004A	4A
仁	110000000	2

普專庭球新義州서勝

【新義州】遼來의 普專庭球部는 二十五日 午後二時부터 新義州府廳코―트에서 全新義州軍과 試合을 行하얏는데 普專軍이 快勝하얏다한다

大邱에서開催될 女子籠球代表決定

大邱에서 廿七、八兩日間 籠球協會支部主催로 全朝鮮女子籠球選手權大會를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該大會에 出場할 代表團은 다음과가티 選定하엿다한다

◇中央部代表=淑明高普 進明高普 第一女高
◇南部代表=大邱女高普 釜山女高普
◇西部代表=樂樓

英米의對陣決定 떼杯爭霸戰

【倫敦二十六日發聯合】四對一로 堂堂히獨逸을 擊破한 米國庭球團은 二十七日부터 英國選手와『윔블돈』에서 떼杯爭霸의 挑戰試合을行할터인데 二十六日 對陣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二十七日 單式 오―스틴(英)對아리슨(米) 페리(英)對빠지(米)
▲二十九日 複式 (휴―즈(英) 다케이(英))對(아리슨(米) 반 린(米))
▲三十日 單式 오―스틴(英)對빠지(米) 페리―(英)對아리슨(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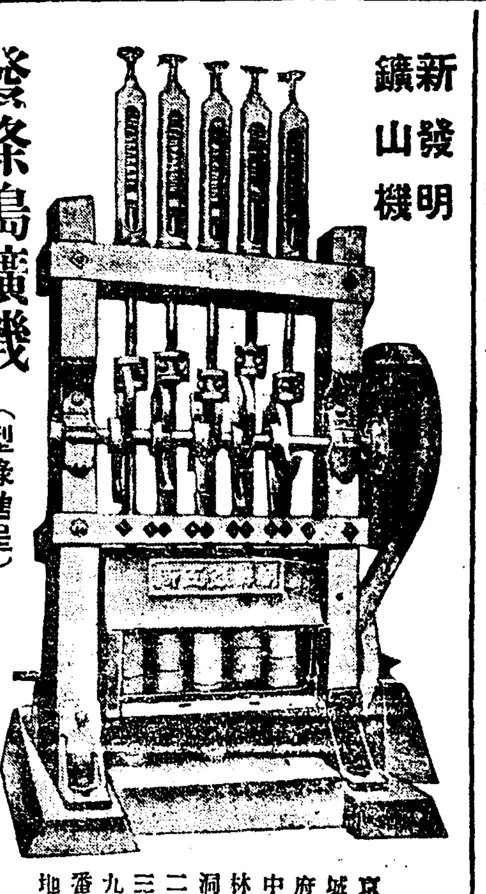
콜럼비아레코―드에限하여서는 鮮一樂器店으로
京城府鍾路二丁目韓靑빌띵 電話光五七七

劉道順作詩 江口夜詩作曲 流行歌

녹쓰른비녀 蔡奎燁 人氣白熱化!!
콜럼비아레코―드

배를채우지마라! 차게자지마라!
腹痛食傷에잘듯는 腹痛多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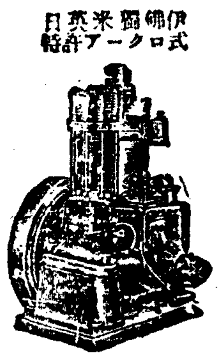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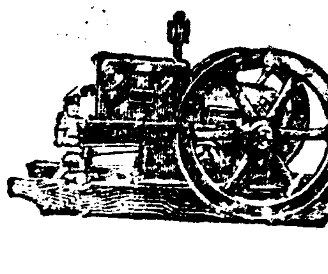
頭痛에는따로(ミタン)잇습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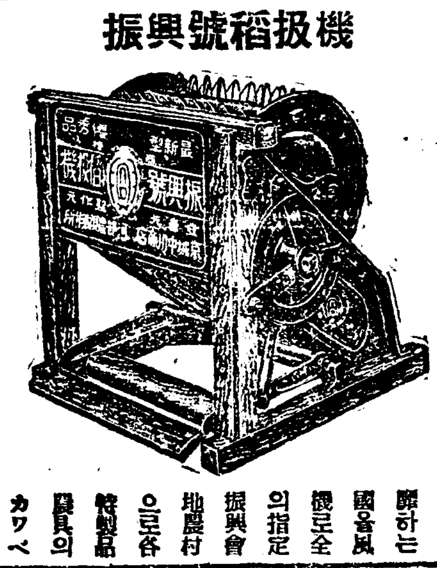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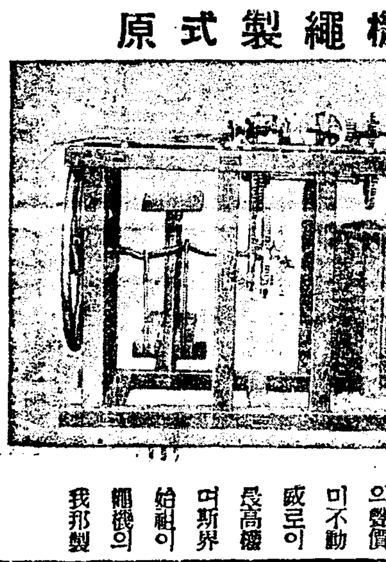
新發明 鑛山機 發條搗鑛機 (型錄進呈)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本局(三四八・四三六番)

七百圓以上金融 ―絶對秘密嚴守―
電話賣買 京城電話仲買店 東一銀行化門下側 電話光二九七九番

◉廣告◉ 本人의印章을盜用하야金錢을借用하려는者가有하오니江湖僉位는欺瞞에愼하심을爲要 昭和十年七月十日 安原郡上南面退村里 石萬

朝報案內 乳母急求 유모를지급히구하오니원하는분은속히와주시압 京城府壽松洞一ノ五三 崔九周

クボタの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伊佛獨英米 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文獻送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3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二丁目 電話新町 901・302・303・3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最古의歷史 最新의技術
獎推의名機大二
振興號稻扱機

原式製繩機

一郡一店特約店募集
振興號稻扱機 原式製繩機 鮮滿總發賣元 中川商店農具部 京城府黃金町一丁目二七番地 電話本局長一一二九番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金銀白金 高價買入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〇 金寶堂 吳健燮 電話本局七六七番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三六
七月二十六日낮부터三日間 每日三回正午三時半八時
入場料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MGM會社特作全發聲日本版 WS반다이크監督 큐바의戀歌
◉松竹키네마超特作 佐佐木恒次郎 姉內美子、竹內良一、飯田蝶子、
豫告乞期待 朝鮮名畫 戀愛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朝鮮料理

京城鍾路
太西館本店
電話光化門（一三四番 / 二〇五六番）

太西館別莊
漢江鐵橋龍鳳亭
電話龍山一三四一番

短篇小說

만무방 (11)

金裕貞 作
安碩柱 畫

응칠이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주엇드니
『팍 사원 남엇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비갑고 뭐하고 호지부지 녹앗서――』
어색하게도 혼잣 말로 우물쭈물 우서버린다。
응칠이는 등명스러히
『나 이원만 최게』
하고 손을 내대다 그래두깔 듯지안흐매
『따서 틀이 노늘테야、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가 한번 빽아니 나올수 업다。
이맘에야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듯、저고리 섭을 처들고 흠처거리다 주뺏주뺏 끄내놋는다 따는 응칠이의 솜씨이면 낙짜는 업을것이다。설혹 재간이모잘라 일는다면 우겨이라도 도루 물아갈거니깐
『나두 한케 떼보세』
응칠이는 우좌스리 굴로 기어든다。그 콧등에는 자신잇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치 그를 행복하게 하는건 다시업엇다。 슬프다가도 화토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공연스리 어깨가 으쓱어리고 아무리 입이바빠도 노름판은 엽에몸두고지난다。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스윽쩍한번 훑고
『두패루 너느지?』
응칠이는 재성이와 용구를데리고 한엽으로 비켜안젓다。그리고 신바람이나서 화토를 섞다가 손을 따악 집프며
『뒤전이래지 이깐 화투는 든 뭘할텐가 녹빼낀가、컬텐가하?』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엿다。 바위우에서 혹 바람에 모래 구르는 소리뿐이다。어쩌다
『엣다 봐라』
하고 화토짝이 쩍쩍、한다。 그리곤 다시 쥐 죽은듯 잠잠하다。
크듬은 이욕에 몸이 달아서 이야기구 뭐구 할 여지가 업다。한여 속지나 안는가、하야 눈들이 빨개서 서루 독을 올린다。어떤 놈이 뜻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뜻기는 놈인지 영문모른다。
응칠이가 한장을 내던지고명월공산을 보기조케 떡 제처노니
『이거 왜 수짜짐이야!』
용구가 끝을 벌컥 내이며 치어다본다。
『뭐가?』
『뭐라니、아 이 공산 자네 밋테서 빼내지안헛나?』
『봣스면 고만이지 그럿케 노할건 또 뭔가!』
응칠이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의 화토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우서버린다。
이때 한 엽헤서 별안간
『이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시선을 몬다。 머슴이 마주 안즌 상투의 뺨을 갈겻다。 밀인즉 매주 다섯끗을 업허첫다、고――
허나 정말은 돈을 일흔것이 분한것이다。이돈이 무슨 돈이냐하면 일년품을 팔은 피무든 사경이다。이런 돈을 송두리 먹니다――
『이자식너는 야마시꾼이지 돈내란』
면상을 훔켜잡고 다시 두번을 때린다。
『허、이놈이 왜 이래누、어른을 몰라보구』
상투는 책상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쓰윽 펴드니 점잔히 호령한다。자식벌 되는 놈에게 빰을 맛는건 말이 좀 덜된다。
약이 올라서 곳 입을 칠듯이 용덩이를 번쩍 들엇스나 그러나 그대루주저안고 말앗다。악에 바짝 바친놈을 건드렷다는 결국이 쪽이 손해다。 더럽단듯이 허、웃고
『버릇업는 놈 다봣고!』
하고 꾸즈진것은 잘 됏으나 그여히 어이쿠、하고 그자리에폭 업프러진다。이마가 터저서 피는 흘럿다。어느 틈엔가 동맹이가 나라와 이마의 가죽을터친것이다。

二十七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童話 강아지가 되수복이 鄭寅浣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八時 講話 開城土俗(二) 松都高普 李建根
▲어린이와家庭의밤
◇同八時三〇分 兒童劇 少年西遊記 全二景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同九時五分 明笛獨奏 一、아츰 二、음바생각 三、荒城의달 四、會友 五、夜想曲 鄭德海 伴奏 金吉洪
◇同九時二〇分 開眼旨내 石泉
◇同九時三〇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當身에게…스피-로作曲 二、피아노獨奏 쇼팡作曲 三、獨唱 (가)離睡 (나)님의잠바게…물레이크作曲 四、피아노 前奏曲…쇼팡作曲 五、獨唱 悲歌…마스네作曲 獨唱 李相鎬 피아노伴奏 金今順

二十八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流行歌(레코드音樂) 輕音樂의午後
◇同一時二〇分 (大)吹奏樂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行進曲『親友』…타이케作曲 二、波蘭風舞曲…샤르벵카作曲 三、序曲『마드릿드의 여름밤의追憶』…글링카作曲
◇同二時一〇分 앗코-듸온獨奏 一、椰子樹의달…鈴木靜一原作 二、아리랑夜曲…同 三、다시맛날때까지…佐佐木俊一原作 四、波濤를넘어서……로-자스作曲 五、그들、그거리…佐佐木俊一原作 六、그대의사랑을…듀프-르編曲 七、女子들보았습니다……가르드니作曲 大阪市音樂隊 指揮 林亘 모리스듀프-르
◇同六時三〇分 童謠와鑑賞 洪蘭坡
◇同六時五五分 必田開發講話 人道는誠에잇다 朝鮮儒敎總會 任創宰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湖南歌 二、唱劇調 林방울 鼓手 韓成俊
―빠하名曲國際放送―
◇同二時二五分 東京으로부터
◇同八時三〇分 獨逸로부터 遁走曲技術 (요한·세바스티안·빠하作曲 볼프강·그레-체르 編曲 오-간 헤르바르트·콜로첼바로 월라·쎌라 프리-드벨드·샤라 라이프치히 交響樂團 指揮 한스·와이빠하
◇同九時一分 東京으로부터 音律 雅山會像 女琴·李彦植 洋琴·李承煥 爰琴·池龍九 短簫·洪斗慈 細笛·締鼓强 杖鼓·李意夏
◇同九時三〇分 피아노獨奏와獨唱 一、피아노獨奏 暴風雨…헬리·웨-버作曲 二、獨唱 (가)날부르는音聲…파레作曲 (나)一生의黃昏…멘델스존作曲 (다)노래하는行人…킈때르리作曲 三、피아노獨奏 祈禱…웨-버作曲 四、獨唱 (가)언제나만나릿가…허-버트·존스作曲 (나)도라갈내故鄕…청介·송作曲

二十九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 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京城運動場으로부터―
◇同六時三〇分 아코-데온獨奏 金文星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貿易으로본朝鮮經濟 李健赫
◇同八時 講演 여름과旅行 金晉燮
◇同八時三〇分 二重唱과獨唱 一、二重唱 歌劇『마담바터플라이』피아노伴奏 金文輔…奏치니作曲 二、獨唱 (金山穆)(가)歌劇『토스카』中에서…奏치니作曲 (나)歌劇『쌀리앗치』中에서……레온카발로作曲 三、獨唱 (林憲翼) (가)西班牙小夜曲……비제作曲 (나)疑問……介-버-르作曲 테너 金山穆 바리톤 林憲翼
◇同九時一〇分 =京城으로부터 全國中繼= 鐘路夜市風景 ―京城鐘路街頭로부터中繼―
◇同九時三〇分 漫談 白狐亂舞(一) 申鼎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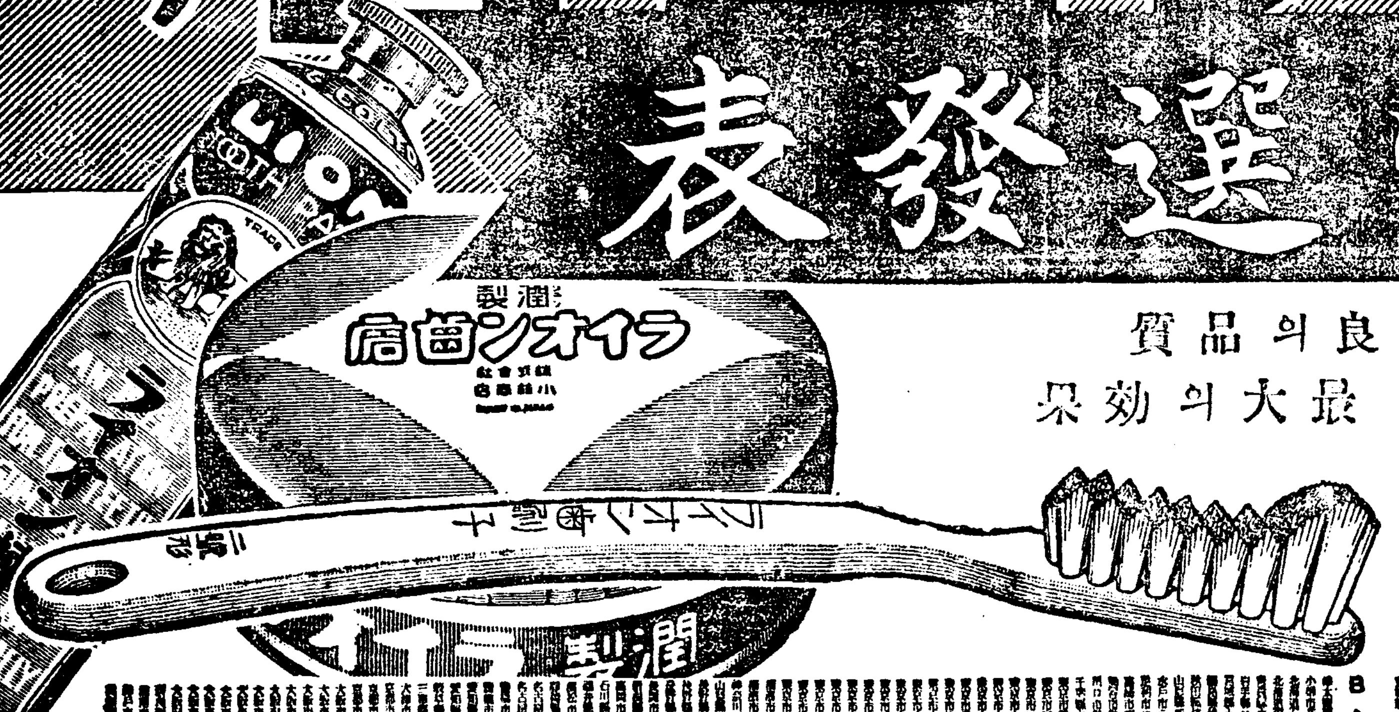
ライオン齒磨 을 이 라

五十萬人大懸賞 當選發表

感謝

去二月中旬에全國的으로發表한弊社主催五十萬人當選大懸賞은愛用者各位의熱狂的人氣를끄럿스며、空前의驚異的記錄으로써大團圓을二時에알여들이게되엿습니다。진정으로感謝함을마지아니하옵니다。이中에서正解三百五十九萬三百五十九通을、所管警察署員立會下에、嚴正抽籤한바別記의結果을보게되엿습니다。이에그것을發表하는同時에各位의寵眷을深謝하오며、다시將來에도一層더支援을懇願하는바이옵니다。

(懸賞課題의答案은『ライオンハミガキセカイ一』라고한것이正解올시다。)



最良의品質
最大의効果

特等·七百名 (敬稱省略)

A 長距離空の旅行券 壹百名
[illegible]

B 金側腕時計 壹百名
[illegible]

C ベビー·パール寫眞機 壹百名
[illegible]

D 本眞珠金指環 壹百名
[illegible]

E 子供用自轉車 壹百名
[illegible]

F 振袖人形 壹百名
[illegible]

G フランス人形 壹百名
[illegible]

壹等 貳千名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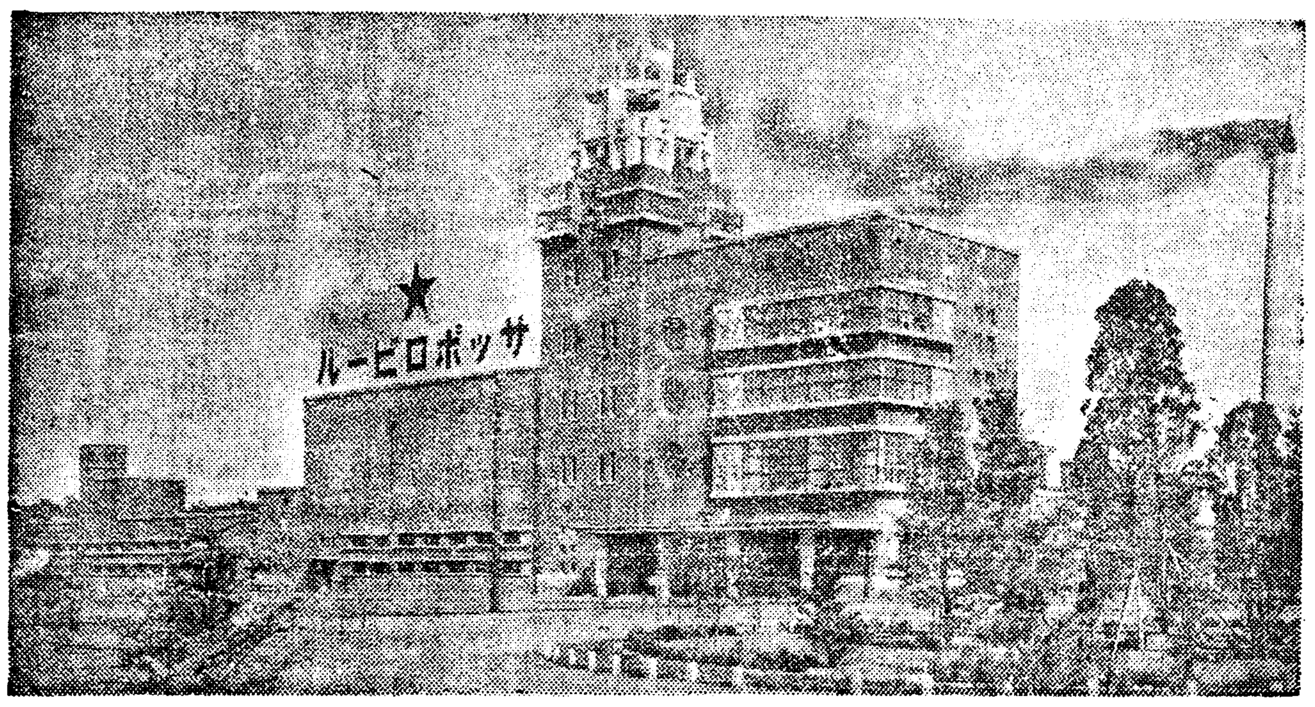
以上에貳等七千名、參等五萬名、四等十八萬名、五等二十六萬三百名、에對한芳名은、全部省略하옵나이다。賞品發送은八月中에全部完了할豫定이옵니다。

7.10—101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鮮産의자랑

サッポロビール
アサヒビール
特製 ユニオンビール
三ツ矢サイダー
リボンシトロン
三ツ矢平野水



朝鮮麥酒株式會社永登浦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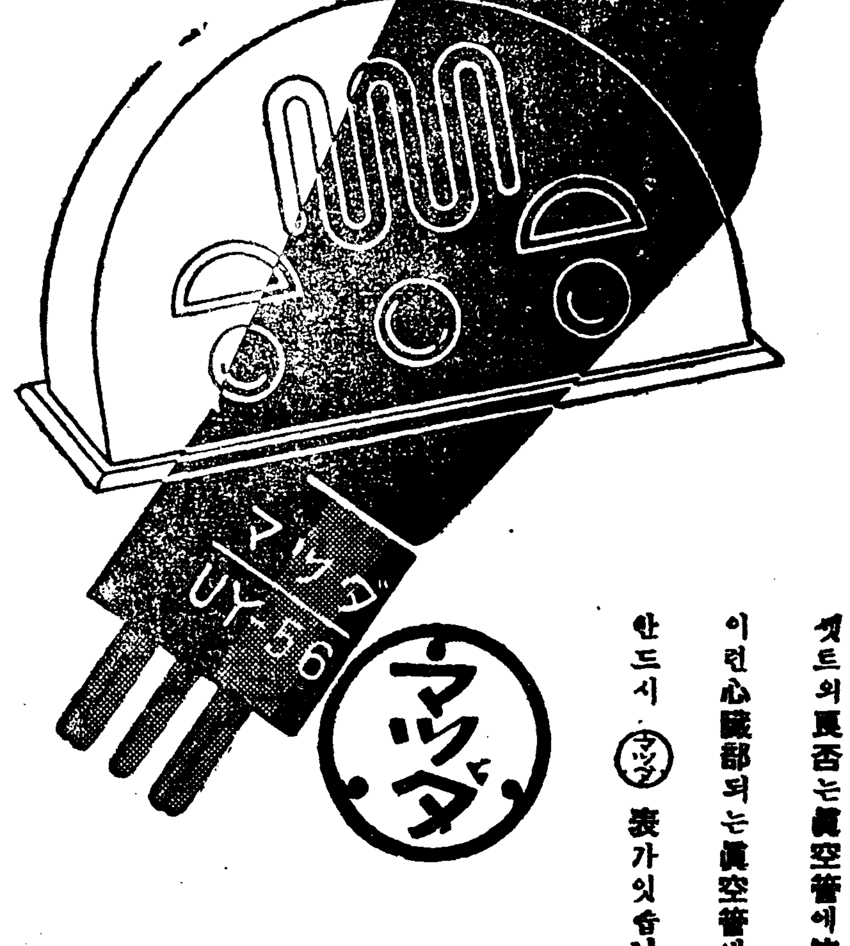
キリンビール
기린삐ー루

最古의歷史
最新의設備
最上의品質

淸涼飲料 キリンレモン
キリンスタウト

麒麟麥酒株式會社

ラヂオ受信用
マツダ眞空管
마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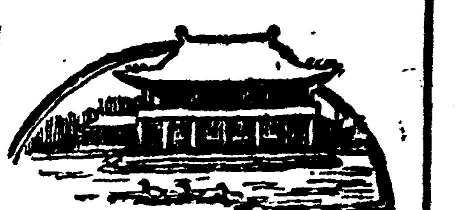


眞空管은셋트의心臟!

셋트의良否는眞空管에依함
이런心臟部되는眞空管에는
반드시 (マツダ) 標가잇습니다

(近處라듸오店、電氣店에서求하시요)

製造元
東京電氣株式會社



古建物巡禮 (13)
閔中殿의 舊基 感古堂
湖岩

安洞槿花女校외드러가

는 入口에 宮廳비슷한 크다란 古家가 하나잇스니 이것이 곳 有名한 感古堂이란다 本名은 녯날 肅宗의 國舅인 驪陽府院君閔維重의 邸宅으로 仁顯王后閔氏를 廢하야 이집에 幽閉하엿다가 六年後에 復位될때도 이집에서 도로宮中에 드러가게되시든 由緖깁흔 곳이다 其後變遷이만흔데에 不拘하고 近代에 오도록 어진은 閔氏宗中의 번갈아 年동안 [illegible] 이집을 改建까지하엿스니 驪陽府院君 以來 幾家이면서도 近代閔氏 [illegible] 以後의 敗衆한 新邸이다 그러나 이집에는 肅宗當時 仁顯后閔氏의 드려잇든 [illegible]처럼 되고말앗스는데

明成后閔氏도 胎生은驪州

이나 자라시기는 역시 이感古堂이엿는바 丙寅年에 高宗王妃로 冊封됨에 미처서는 녯날肅宗王妃閔氏의 故事를 追思하사 이집에 對하야 感古堂이란 賜號를 하섯다 그뿐아니라 閔氏一門이 金錢을 賦飲해서 累百

廢位된後에 게시든房屋

이 오날날까지 남아잇다 하며 그들에는 仁顯后閔氏의 幽閉되엿슬 當時에 잇든 松木이 지금도 오히려 남아잇서 녯일을 말하고 잇다 한다 肅宗이 前

後三妻에 [illegible]은 光城府院君金萬基의 따님이니 仁敬王后시요 三妻는 驪陽府院君閔維重의 따님이니 이곳仁顯王后시요 三妻는 慶恩府院君金柱臣의 따님이니 仁元王后시다 三后가 모다 無子하섯스니 肅宗께서 이三后를 따하사 [illegible]을 지여주섯는데 仁敬王后 金氏의 親庭에 지여준 집은 寬勳入口左側의 [illegible]家가 그[illegible]이며

仁顯王后閔氏의 親庭에

지여준집은 곳 이安洞感古堂이며 仁元王后金氏의 親庭에 지여준 집은 지금 中東學校 마즌편 [illegible]가 그[illegible]인바 이러케 后家를 돌보시든 肅宗이 웨 婚德이 놉흔 仁顯王后閔氏를 [illegible]하야 廢位까지 하엿는가 그는 肅宗이 張禧嬪을 寵愛하야 그리한것이며 一朝廢位햇든 閔氏를 또다시 復位시킨것은 무슨까닭인가 이도 肅宗이 張禧嬪의 奸慝한것을 미워에서 그러한것이다 張禧嬪은 [illegible]에서는 [illegible]의 따님으로

芳年이되게 姿容이[illegible]

하야 누구나 보면 [illegible]하게 되엿다 一日은 肅宗이 [illegible]에 [illegible]하실새 張氏따家堂안에서 [illegible]을 엿[illegible] 우에 올라서서 [illegible]하시는 님것을 바라보앗다 어떠 [illegible]서 光[illegible]人하는 이 [illegible] 容貌美에 엽이시어 內[illegible] 命하사 곳 누진[illegible]을 알어오라하드시니 [illegible]하시자 곳後宮에 [illegible]다가 [illegible]하섯는데 그몸에 비로소 王子(景宗)가 나섯다 그리하야

世子冊封問題가 일어나

매이것을 政爭의道具로 삼아 南人과西人이 서로겻고틀고하다가 畢竟西人의 大老宋時烈에게 賜藥까지하엿고 西人들이 몰려나고 南人들이 [illegible]하게 되바 이로부터 南人들은 [illegible]을 엇고서 한참동안 서슬이 [illegible]서지만 [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되때 다시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閔后를 그[illegible](古宮)로부터 마저다가 復位하는同時에 南人을 몰리치고 西人을 다시 쓰니 때는肅宗二十年甲戌四月이엿섯다 [illegible]南人은 [illegible]

政局은거의 西人의獨占

이 되다싶히되엿다 그러나 여기 [illegible]한것은 無代[illegible]王妃와 王室의 骨肉相殘이 當時沿[illegible]의 [illegible]이든 黨爭그것과 서로 關聯되지안흔것이 업는디마지 이 肅宗妃 閔中殿의 廢復事件에 잇서서도 黨爭을 떠나서는 說明할수업다。

學藝

七月創作評
作者의 義務觀念과 作品構成의 偶然性
李源朝

먼지스달에 創作篇數가 十餘篇을넘엇고 이달에도 亦是 그만한數에이른것을보면 量으로보아서는 우리創作界도 그다지 蕭條하다고볼수는업다。 더구나 作家들이 모다 이른바 大家들이 아니고

中堅 乃至 新進들이 或 쉬엿든붓을다시들기도하고 또는 다달이 繼續해서 쓰시는분도잇는것은 各雜誌의 프로그람만보아도 자못 活氣를띄인바이지도안흐다。 그중에도『隊』을發表한뒤에 오래도록 沈默을 직히든 李孝石氏가 이달이는 두篇의作品을發表한것은 반가운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러면 먼저『中央』에실린 李孝石氏의『季節』부터보아가기로하자。

이作品의 全體的印象으로본다면 일직이 이作者가『隊』의水準에이르럿든 記憶에비취서 이作品은 우리가기대는

期待와 好意를 多少間 헐지안흔것이아니라 이作品의男主人公건은 일직이社會運動을하다가 무슨事情으로서인지 一時는 그戰線에서退却하엿는데 이러한동안에 어느『카페-』女給과同居하면서 私生兒를배게하엿다가 그것을 墮胎식혀버리고 등경으로 다려나서다시 운동을繼續한다는것인데 실상은 이作品의 女主人公보배의 過去가 더伏線的이오 屈曲이만타 그래서 이作品은 그體裁上으로보아 보배의生涯環境、心理가重大것이 그主題인것이고 차라리 거의

出沒은 엑스트라와가튼것이다 그러면 問題는 正히 여긔잇는것으로서보배의 生涯나 環境이나 心理를 그리는데잇서、일직이 自己의魂女性을 빼아서간태규(이사람때문에 보배의運命은 淪落의한길로決定되엿다)나 또는 自己의친구이면서 自己를抱擁한 태규의 醜手에걸닌 용련과의 關係는事件의內容으로보아서는 必然的關係이잇는데 比해서 건과의關係는 이主題에잇서서 반드시必然的인關係이 업슬뿐만아니라 더구나 건이 일직이社會運動을 하엿다든지 또는 東京으로건너

參加의 테-마와는아모런關係도업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건이 社會運動의鬪士가아니고샐러리맨이든、浮浪者이든 文士이든 이作品의構造에잇서서는 아모런影響도업는것이다。그러면作品의 構造로보아서 아모런影響도 업는것임에도不拘하고 作者는 社會運動의鬪士인 건을일부러登場시킨理由가무엇일까?

나는 여긔에서 作者의 살어지는 良心的인 一種의倫理的 義務觀念이잇는것이아닐까?한다 그러고 여긔에서는 이것을가지고

深責할것은안될것으로 이만하거니와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건이 社會運動의 鬪士로서 出沒한것이 이作品의 內容으로보아서 아모런必然的關聯이업는偶然的인것이라면 태규가 仁川海水浴에서 오련을데리고갓다가 건과보배를만나서 逢變을하는場面은 形式上으로보아 多分의偶然性이 잇는것갓다。업마지되는 短篇에서 까지 偶然性으로 스토리를 進展 시키다는것은 作家의 羞恥가 아닐까?다만 이作家가 다른 作家에 比해서 特異한것은 그行文과用語에 잇서서

淸新한맛이 잇서서 어데인지作者의 才氣[illegible]한데가 잇는것을 보이는것이다。

그러나 이淸新하고 [illegible]한것이 도리혀 [illegible]가될때도 잇스니 기러例를 든다면 이作品의全體的印象으로 보아서는 건의性格은 原重하고 [illegible]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作品의 첫머리에 시작되는 [illegible]의 [illegible]는 자못 沈痛과 煩惱와 不安과 恐怖의 雰圍氣속에서 進行될事件인것이다 그러나 건과보배의 對話에 잇서서 건의語調는 沈痛한빗치 업슬뿐만 아니라어느餘暇에『롱담』을할생각이나며 더구나

電車 속에서 여러사람의 視線이한곳으로모히는그오면의보를『마진편에 안진양정한 처녀의압헤 갓다가 줄어보인다면 그의표정은엇더케변할가하는 惡戱的空想을할 感情의餘裕가어되잇슬가?이러한 것은아모리상업는사람에게서도 想像할수업는 心裡이마큼 건의性格과는아주矛盾되는點이다。 여그에서作者는 人間的責任을 反省할必要도잇슬듯하다。

條件反射論小考 (4)
鄭槿陽

條件的反射는 여러가지 事情에 依하야 禁止된다。禁止作用이잇슴으로써 條件反射의 分化가 精細히되며 따라서 禁止되는것이 條件反射를 硏究하는데잇서 重要한 問題의 하나이다。條件的反射의

效果를 일케하는 外部的條件은 이루 헤일수업스나 其中 吾人이 査定할수잇는것은 무엇이냥 파브롤氏에依하면 이것은 神經의 一種의 禁止作用이다。禁止에는 二種의 區別이잇스니 一은 一定한 外部刺戟에依하는것 即 外部禁止요 二는外觀上 何等의 外部刺戟에依하지안는것 即 內部禁止다。

要컨대 動物의 生理現象에는 環境事情이 不斷이 作用하야 一便 無數한條件反射가 成立되며 또 한便으로는 늘 이것을抑制하며 禁止하여간다 이事實은 實로 生活現象의 根本法則 即 環境과의 平衡이라는 重要한要求를 滿足식히는것이라고생각할수잇다 唾液分泌機轉에 잇서서도 놀날만한順應性을엿볼수가잇다。即

動物에게固形食物을주면 多量의唾液을 分泌하며 水分이만은 食物을너으면 小量의 唾液이 分泌된다 이가튼 作用이잇슴으로、動物은 食物의下嚥을圓滑히할수잇는것이다 條件反射에依하야 啓示를맛는 最高의神經作用은 興奮、禁止及解放의 三個根本作用의 相互出現、더適切히말하면 그均衡에다름이업다。

이리하야 外界의 各要素와 有機體사이에 精密且複雜한 相互關係가發生된다。먼將來에는 此等의均衡狀態가 全部自然科學的으로 硏究되고 分析되여 엇더한體系下에술것이라고한다。高等動物의 外部動作은 이學說에依하면無數한 條件反射의連鎖이다。動物을싸고잇는 外界는 間斷업시 條件反射를 構成하는一方、이를禁止하는作用이 發生된다。

大腦에서 例를들면、大腦의 一定部위에興奮이생기면 그와가장 먼極에는 制止가생기고、制止가생기면 相對部에 興奮이생긴다。即 能動的反射가 存在하는反面 受動的反射가 存在한다。

神經作用의 基礎는 所謂 反射作用과 本能에依하야 形成되다。本能도 또한 一種의反射요 複雜한 連續無條件反射라고 할수잇다。本能은 一定한 刺戟에 對한 生得的聯合이요 이를 基礎로 하야 最高의 神經作用이 形成된다。

前論한바도 잇거니와 何等無關係한 現象이 本能作用과 同時에 數次反復하야 作用할때에는 無條件이라도、그作用은 精神的으로 그本能을 刺戟하게된다。一例를 들면

食慾을 刺戟하는 食物은 本能的으로 唾液分泌를 일으킨다。다만 食物을 주기直前에 鐘소리를 들려주면 얼마後에는 鐘소리만으로 食物을 줄때와 가티 唾液分泌가 일어난다。이것이 [illegible]本能이라는것은 條件反射다。

條件反射가 吾人의 行爲에 大端히 重要한部分이라는것은 그것이 個人의 生活途中에 獲得되는것이라는것、敎育이라는것、個體의 發達 以外의것이 아니라는等으로써 明瞭하다。 파브롤은 또

條件反射 即 [illegible] 神經作用이 遺傳[illegible]한다고하엿다。一九二三年 아메리카에 招聘을바더 施行한 [illegible]心的演說中에서 다음과가튼 實驗結果를 報導하엿다

納凉隨筆集 (3)
鋪道•狂女•漫談 (下)
―여름의三魔―
李歡河

다음에 바늘꽂가지고 시끌사람의 神經를 利用하야 糊口하는듯한 두사내도 如前히 封套模樣으로점은 노랑조히조각을휘 내두르며 오고가는 시끌사람들物色하고잇다。이네들의 營業模樣가 大體어떠케되는것인지 나는 아직 仔細히 아지못한다。그러나 그들의 行動만은 至極히簡單하다。우에말한 두손에는 노랑조히조각과 조고만 가방에는 若干의 바늘쌈지가 그全部이다 그들은 수수한것이 시끌사람가르면 못들고 어데 어데로던지하면 그만이라고

說明하고 다음에는 바늘쌈지를내여 [illegible]이라고 웨치며 거이떼떼기다십히한다。부절업는 好奇心이지만은 나는 이實質가 엇던條件알에 成立되는지 좀더 確實이알고십다。알고 보면 이네들의所業도 意外에 푸른하늘을 우러러보아 조금도 북그럽지아니한種類의 것일런지도 아지못하겟다 그러나 나는 아모리하여도 이 두사내 더욱이 수염검고 입심조흔 사내에게 好感을 가질수가업다。그들은에 보잘헌 시끌사람을 볼때마다 나는 年前에 서울와섯든길에 서푼자리도 되지아니하는 우리眼鏡을 高眼鏡으로 밋고 사가지고 왓든 鄕里어른을 생각하지아니할수업기때문이다。

그러고 다음에 지나야 하는 우리都會사람의 귀의 享樂을줄理하여주는 두서너

蓄音器店도 如前히 人心조케라지오로『레코드』로 우리귀를 호사식혀준다 그러나 이商店들이 우리에게 特히 寬大한것은 그의 가진名레코드의 하나임이틀림업슬 某氏와 某女史의 對話式漫談을 間斷업시 들려주는 데잇다。이漫談은 서울長安에서도하도 有名하니까 讀者諸氏도 반드시 한번은 드를機會가 잇섯스리라고 밋는다。筆者가 처음 이名漫談을 拜聽할것은 筆者가 二年前 서울왓을때 나는참말로 그들의 滑稽에놀라고 感嘆하지아니할수 업섯든것이다。그들의 藝術은 以來로 그야말로 日就月將 더욱더욱 圓熟한境地에들어가는것가티 보인다。

그러나 나는不幸히 요지음이 漫談을 들을때마다 마치보지못할醜態나 눈아페 보는듯이 얼굴을붉히지 아니할수업다。따라 요지음의 나의 日程에 잇서서도가장 難關이 되는것은正히納凉이라는

漫談을 [illegible]는 蓄音器店아피다。

그러고도 이러한곳에 限하야우리거리의 愛聽家들은 그야말로 人山人海를 일우고 잇기때문에 그것은 二重의 意味에잇서서 나의 難關이되는것이다。우시개와 奇巧한 言行을 조와하는 學生때 나는 나의 所謂 세가지魔物이라는것을 가지엇이잇다。日××。日、詩曰、省線소래。그러나 오날나가 眞一 서울 生活에잇서서 새로히 세가지 魔物을 擇定한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漫談을 첫손가락꼽는데 躊躇하지아니하겟다。

다음에―아니다 나는 이以上『다음』을 거듭하지아니하는것이 讀者에 對한 禮儀라고생각한다。그러고 또 이모든 矢景이 어떤 名畵를지못한 背景앞에 展開되는가하는것도 明白히 말하지아니하는것이 特히 納凉이라는

題目을 바든 筆者로서는 니저서 아니될義務라고 생각한다。그러면 元體 이러케 무텁고 煩雜하고 깃붐업는 글을 쓴 罪過는 엇더케 辯明하려는가。筆者 여긔 限하야 辯明할 道理가 업다 그러나 나는 여긔 한가지 反問하고십다。大體自己自身에 서늘한 구석을갓지 못한사람으로서 엇더케 다른사람을 서늘하게 할수잇스며 또이騷의 거리 이俗惡의 거리 이罪惡의 거리에잇서 참다운淸凉劑를 發見할수잇는사람은 果然엇던사람이냐고。(完)

探報臺
나나니의 化身들

그사람이 眞一 眞實한 學徒라면 알려는것도 眞理、차즈려는것도 眞理、그래서 직히려는것에 眞理에 벗어나지 안는다。어린아히들의 속곱질과가티 好惡의 感情이 朝夕으로 바뀌거나 장사치의 去來와가티 利害의 打算이 아홉 서서는 決코 될수업는일이다。이만스것을 그누가 모르리?새삼스러운 나의 說明이 오히려 부질업슬뿐、그러나 同輩의缺陷을 說破한다고 是非요 論難한다고 是非요 甚하면 親한터에 좀 沈默하지 못한다고 是非다、이러한 是非人君의 是非에服從할진댄 모든 缺陷 모든 誤謬에 對하야 垂手傍觀하는 以外 더다른 道理가 업슬것이다。우리는 다가티 眞理를 爲하야 一生을 犧牲하는 무리가 아니가? 내이미 그대의 缺陷을 보앗거니 엇지말하지 안하며 그대또한 내誤謬를 보게되면 엇지말해 주지 안할리가? 無理한 共鳴을 要求할수도 업거니와 有理한 反對에는 도리어 反省이 必要하다。이러한 態度로써만 自己自身도 더 一層 眞理에로 眞理에로 나아가자는 것이다。俗學者의 偏見을 버리랑。나나니의 化身이 아니어니 왜 何必『남달머리』를 외우고 잇는가?(海若)

第五回夏期 宗敎敎育大會
外金剛溫井里에서

基督敎朝鮮監理會 總理院敎務局에서는 七月二十五日저녁부터 同三十一日까지 外金剛 溫井里 基督敎修養舘에서 第五回夏期宗敎敎育大會와 第一回夏期牧師修養大會를 열것이라는데 申請한 會衆은二百餘名에 達하엿스며 大會節次는 午前六時부터 同七時까지 朝天體操와、同九時부터 同九時半까지 祈禱會가잇고 同九時半부터 零時半까지 講習會를 여는데 內容은 主로 宗敎敎育에 關한것이며 午後와 夜間에는 特別講演이 잇서서 一般文化領城에서 高尙한 知識를 涵養케하는 同時에 運動遊戲가는것도잇고 會期終了後 八月一日은 金剛山一帶를 探勝하는날로 定해서 자못 盛會를 豫想케한다고한다。

新刊紹介

▲高麗時報 第二十四號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定價一部五錢

▲靑年太陽 八月號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 日本靑年文化協會發行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正音 第九號 京城府[illegible]五二 朝鮮語學硏究會發行 振替京城九〇二〇 定價二十錢

▲槿花 第八號 京城府[illegible]十二番 槿花女子實業學校校友會發行 振替京城一二四三七 定價[illegible]

曆

七月廿八日 (日)
舊六月建癸未(小)廿八日
乙巳 火房開
●祭祀에宜함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黑風 (87)
韓龍雲 作
金[illegible] 畵

초 언 11

『그게 무슨 말슴이야요 그런 말이 어데잇서요 그럴려면 차라리 지구에잇는 사람이라고 하는것이 더 조치안어요 그러지 마시고 꽉집어서 말슴하서요』

콩난은 눈물도고 우스면서말하얏다

『그러면 『아카』냐에 잇습니다』

『아카가 뭐에요』

『아카라는것은 아메리카와 카나다를 합한 이름입니다』

『나는 시러요 누가 그런말을 드러나고 무러나요 정직하게 말슴하야 주서요 어느땅에잇는 사람이라고 하시든지 쫑당으로 마시고요』

콩난은 몸을 조금 흔들면서 말하얏다

『나는 말할수가 업습니다 양쪽땅을 드듸고서서 한쪽땅만 말을하라니 할수가 잇나요』

『그러치요 말슴을 할수가 업지요?』

콩난은 무슨 내기를 하야서 이긴것처럼 득의(得意)의 표정으로 말하얏다

『나는 말할수 업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이지오 양쪽땅을 드듸고 섯스니 그것이 바진구실이 아니야요』

하는 콩난은 서쪽의 발등쪽으로 옴기면서

『지금은 어느땅에 잇서요』

『아메리카 땅 이지오』

콩난은 다시 서편으로 옴겨서면서

『지금은 어느땅에 잇서요』

『카나다지요』

『그러면 아까 양쪽땅을 드듸고 바진구실을 한것이 잘못이지오?』

『거기에 무슨 잘 잘못이 잇서요 일부러 작난으로 한것인대』

『검은빗도 아니고 희빗도아니고 푸른빗도 아닌것을 무엇이라고 한니까 회색이라고하지오 사람도 철저한 주의주장이 업스면 그것을 회색분자라고 하지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심한것이 잇스면 그경은 변치말고 실행하여야 되겟지오 저는 진실하고 변통이 업서서 바진구실이나 회색분자가 되지안는 결혹한 섬겨을 조아하야요』

왕한은 콩난의 말과 행동이 아까 자기에게 말할때에 결혹한것을 조아한다는 말과 원한을 갑기로 결심하야다는 말을 확실히 증명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야서 더욱 이상하게 여겻스나 꼿까지 무러볼 필요가 업서서

『그럿슴니다 사람은 색채가분명해야 하겟지오』

하는 말로 끗을 막엇다 그날밤에 달이 밝엇다 왕한과콩난은 달빗을 따라서 폭포시가의 공원에서 산보하다가 폭포위의 다리로 올나가서 상류(上流)를 바라보고 다시 폭포의아마에 입하야서 폭포의 흐르는 것을나려다보앗다 무서웁게거꾸러저흐르는물은 떠러지는중간에서 여러가지 형상으로 변하다가 마친내는 끗까지 떠러저서 땅을 움직이는 큰소리를 내이는대 그소리는 다시 다른 언덕에 반향(反響)되야서 푸른 하늘로 사라진다 달빗은물소리를뭇드리고 물소리는 달빗을 싯는다 물소리가땅의『멜로듸』라면달빗은 하늘의『스크린』이엇다 자연에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를 일엇다 마음을일은 사람은 자연이되얏다

그리하야 왕한과 콩난은 서로 이슬뿐 아니라 자기까지도 이저바렷다 몰로 만든 사람들처럼 아모말이 업고 조금도움직이지 아니하얏다

엽흐로 지나가는 사람들의발자최 소리는 그들을 늘내엇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를 차젓다 동시에 왕한은 콩난을 찻고콩난은 왕한을 차젓다

『아! 꿈육꾸것 갓다 나는 그새 콩난씨를 이젓습니다』

『엇저면……저는 선생님을 이젓서요』

『그잇면 나이야가라 폭포가우리의 사랑을 빼앗엇는가요』

하는 왕한은 콩난을 도리보앗다

명지모본포에서
조선일보부인독자특별우대!
부인병자택치료서무대진정

명지모본포에서 특별히 발행하는 부인병자택 치료서에는 여자일생의위생법을 누구든지읽고 알기쉽게 七大의한박사께서친절이 지시한것입으로 이책한권만 가지면 자궁병은물론이오 남자의림질과매독등성병과 기타모든 병으로 무한고통을하시는분이라도 넉넉히자력에서 완전히손쉽게치료할수잇습니다 조선에서기원三十년간에『명지모』와『오기나구』는 부인병을하시고 부인병으로젼 [illegible] 부인자[illegible]하시고 『여기까지나신일레가허아릴수업시만습니다 끄르로하마드리고자하오니 부부간성생활에재미를을으고애기까지업서 적마한세월을보내시는분은하로밧비 조선일보에서보셧다하고 청구하시면 부인병자택치료서와여러가지참고서를거저보내드립니다

東京市京橋區人舟町
命之母本舖

에가업는 부인의복음
엇더케하면 임신하는가

대체로부인병중에 자궁병처럼생기기쉬운병은 업슬것입니다그러고 자궁병처럼원인이 복잡한병은업다고 생각합니다대개는급작이 생기지안코또한급히 낫지도지안음으로 처음에는자각도 몰으고 시후(時候)가변하야 월경이좀고르지안흔줄로생각함으로자연히치료가느저지게되오며또한번 이병에걸리면 아모리경증이라도 근본적치료를해서 완치되기전은 애기를못낫케되므로세상에는아이가업스면 자긔들부간에는엇재서 가업슬팔자로만알고우리는어린 어린애기가업는까닭을생각해보지 안코면부인에게자궁병을너무등한히 하고아무치료도하지안흔분이만흔 것은참으로한심한일인줄생각합니다그러면엇더케 하는것이제일조호냐하면가정부인에게서위생에관한지식을 일어가지고이것을실행하고 복그럼업시치료방법을찻는 것이 제일급한일이올시다여기서 여러분게그치료법을안내하고자하는것은『명지모본포』로 여러분의 모든병세를자세히적어 보내시면 병세에따라제일적당한약을지정해드립니다약가는

命之母		錠劑命之母	
六日分	一圓	五日分	一圓
一三日分	二圓	一一日分	二圓
二〇日分	三圓	一七日分	三圓
三五日分	五圓	三〇日分	五圓

容態別로된 加減命之母

一주분	一圓八十錢
二주분	三圓五十錢
三주분	五圓
五주분	八圓

오기나球		重症用 本方오기나球	
八日分	一圓	七日分	二圓
一七日分	二圓	一一日分	三圓
二七日分	三圓	二〇日分	五圓
五〇日分	五圓	四五日分	十圓

이상약을 주문하실때는小爲替나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送金하시는것이 제일편리하오나약을시정치못하야 약가를 몰으실때는 송료만우편(切手)로四十七錢보내시면 병세에따라제일적당한약을 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리오니 부인병으로애기를 못나시는 분은 하로밧비주문하야 복용하시고전쾌하야남과가티귀여운아드님따님을두시기바라어다

「아이」가업는것은 九十%가자궁병
읽으라!안보면 一生의손해다!!

골몰하야! 행복을 찻는여러분! 인간생활에제일귀한것은 건강이오 건강은귀한금전을주고도 살수업시귀중한까닭 건강한사람이모인 가정이야말로세상에행복을독차지한듯이평화스러웁것입니다 그나 그렌데가! 처녀총각이시집가고장가가서희희락락하게 갑브고도집거운평화(平和)의노래를 뿔으고 세월을보내는사람들의 반대로몰행하게도병마에 때진분이야말로 귀여운아드님따님을못나서 부부간정리와가정의재미를 몰으고희롱을내며온식이 멀히지를안코염색이낫브고몸이노곤하며 정신이 분명치를 안으며 어린애가런숭미가 급해지고 쓸데업시 지난일을생각하고 잘울게되는부인은 자궁병이 잘못된것이오며 이런때의증세가 자궁병의시초이올돌으고 하로이틀지내는중에 병은 점점중하게되며 대소변이잘통하지안코 하로에도 몃번식오한이 나며 밤에잠이잘오듭안코 몸은 피곤이 상접하게수척하여지며남몰으게 혼자서세상을비관하며피끝는청춘에가슴에선 꼿업는긴한숨으로지내시는분에게 통정하고자합니다 세상에서복그럼만키로 제일가는 조선부인들은 무서운 병마를 몸에진이고 복그럽다고 숨기는것은 자긔자신을망처버리고 명을 버리는것이나 별다름업다고하겟습니다 또한 부인들께서

월경 부조 한분
대하증이 잇는분
산후쇠약 한 분
자궁출혈 하는분
수 족 이 냉한분
허리와 배압흔분
상기두통 나는분
견비와허리 나는분
가슴이두군거리고숨찬분

이런증세가잇는분은 하나도속이지말고하로밧비부인병양약으로유명한『명지모』와『오기나구』를복용하시면 틀임업시전쾌되옵을 맛습니다 또한『명지모』를복용하시면 잘못된부인병일지라도 근치되거니와 귀여운애기를 못나시든분이라도 애기를나실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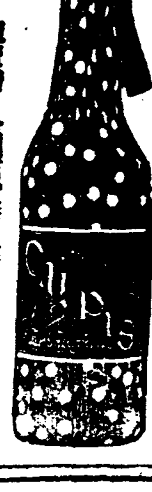
淸凉한맛으로여름타는것을막는 滋強飮料

夏節은 가루피스

子女를끼 姙産婦에 病弱者에

山에서―
바다에서―
거리에서―
아츰에 오정에
저녁때……

經濟的
飮用量一本을마이기곳켜놓면 사이다한打分은넉넉히됩니다!
一本에一圓짜리赤紙(包)면사이다五[illegible]
一本에단지八錢이오



販賣所 全國百貨店・食料品店・酒店・藥店
製造元 カルピス製造株式會社
發賣元 京城 辻本商店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이 제일이요

효력최극상ㅊ 특등주세계에서제일유명한독일약(해두미도ㅣ루)도만히들엇고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전보다만히더느엇답니다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좀소태、월경고르지못한데며하혈(下血)등으로병치료를하야보고별별약을써도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근치안되며고통하누분은이거저거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l) 구로벨은들이업는약이다이러하자신(自信)을어든결과환자의안심과신용을엇기위하야장담하오니안심하시고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여러해된고질특히재발한만성림질과대하증은물론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염 뇨두협착등에좃코

二、이약은다른약과가티지리하게오래안먹고만급성간에오래된고질만성증이라도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구로벨만은조금도안상하고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위장이약한부이만이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말은효험본여러분의칭송하는것이오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약성에구원、만성리타제중에오원、대하중、냉병기타부인용에오원、급성과부인오줌소태에삼원、지방송료선금무료、대금인환은삼십전(오원이나십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무슨약이든지이십일쓰시외특이성의체질(特異性質)노병에안맛거나광고와틀리는점이잇거나마음에안맛거나특효가업거는약을곳보내시요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제일큰서양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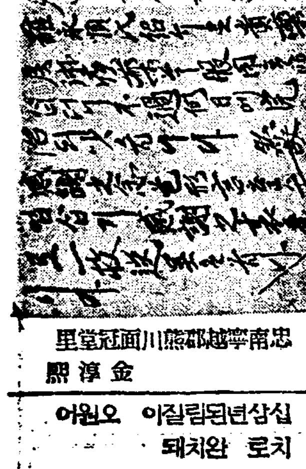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그전신성당약품부)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 걸니면 눈먼아희를난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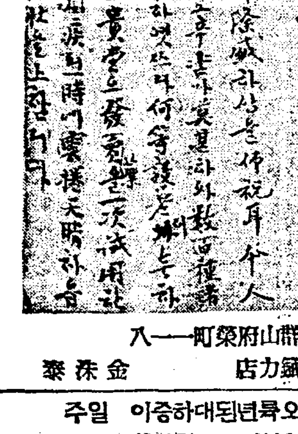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 우등자를 나십시오

귀사 림보독자소개로 칠개년된림질이 봄눈가타업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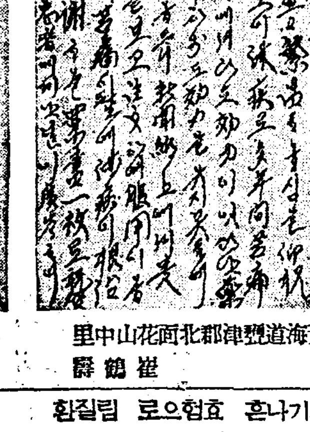
忠南寧越郡熊川面冠堂里 金淳熙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운권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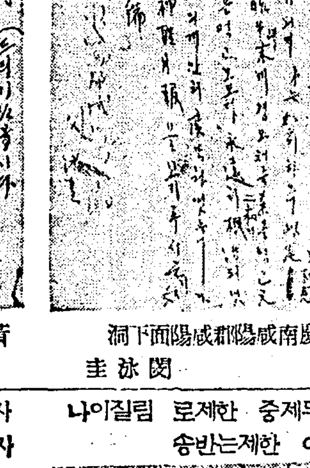
群山府榮町一一八 羅力店 金洙泰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 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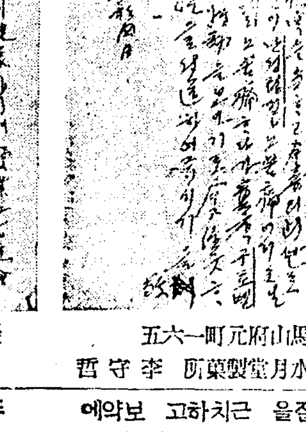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鎬爵

작년에는 체증에 경오를 금춘에는 림질을구로벨노아주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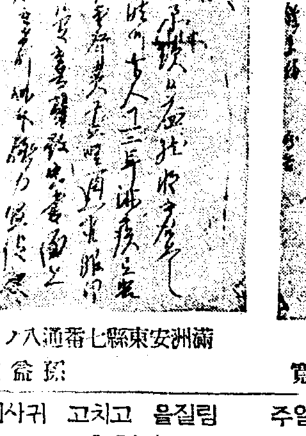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illegible] 만성림질 [illegible] 또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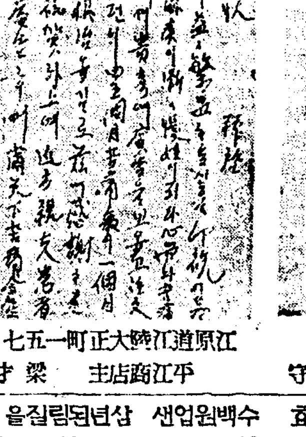
馬山府元町一六五 水月堂製藥所 李守哲

수년된 림질아 [illegible] 극력선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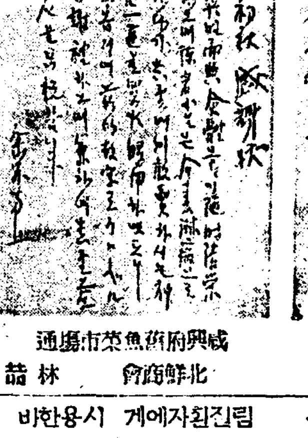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遠

사오개월 고통한 림질아 다나어서 친지에게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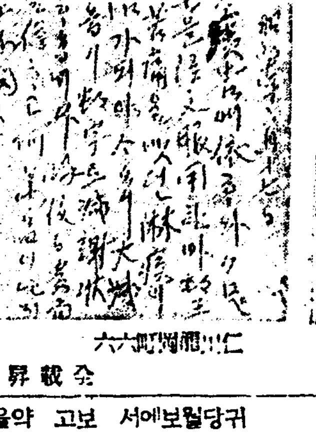
江原道江[illegible]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主 梁才寬

고통에고통하던 림질 [illegible] 다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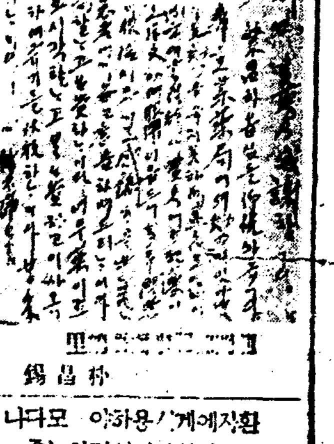
咸興府魚菜市場通 北鮮商會 林喆守

수년된 림질아 완쾌되아 신 성당약이라면 다 신용하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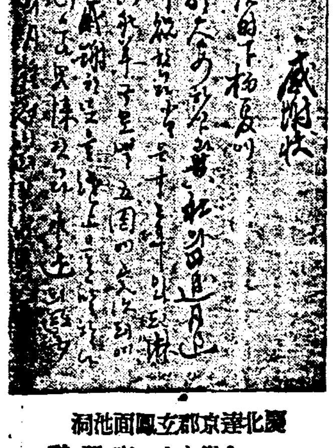
仁川[illegible]町六六 全載昇

[illegible] 림질아 완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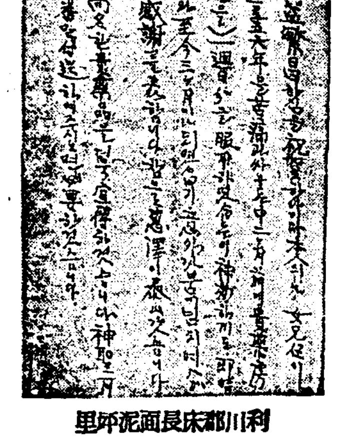
[illegible]里 朴昌錫

십삼년된림질이 오원어치로 완치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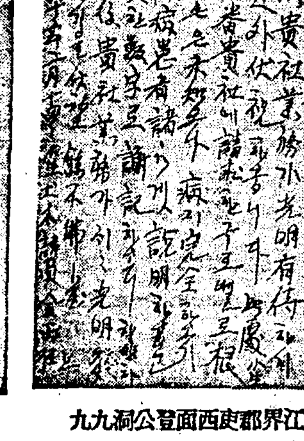
慶北達京郡安鳳面池洞 金錫永方 李源聃

오륙년된대하증이 일주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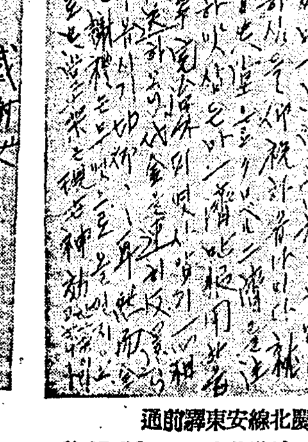
利川郡床長面泥坪里 柳慶秀

자기나흔 효협으로 림질환자마다 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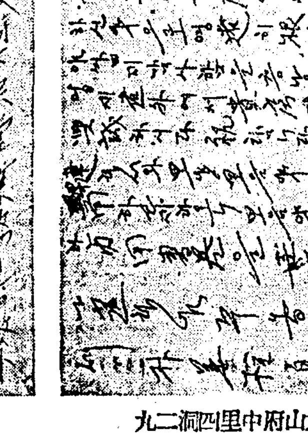
江界郡吏西面登公洞九九 土木請負 金丙柱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어 한제는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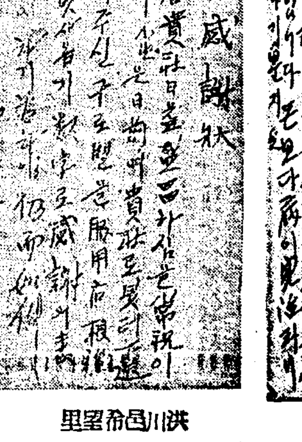
慶北線安東驛前通 誠進社主 孫極壽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 대한실경서를 도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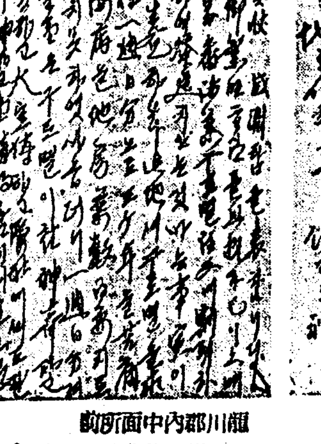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柱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 번영을늘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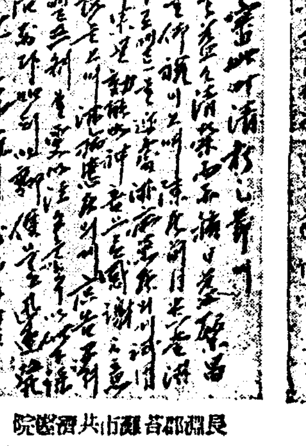
洪川邑希望里 裵泰一

수백원업샌 삼년된림질을 일주 분으로곳치고귀사특약점이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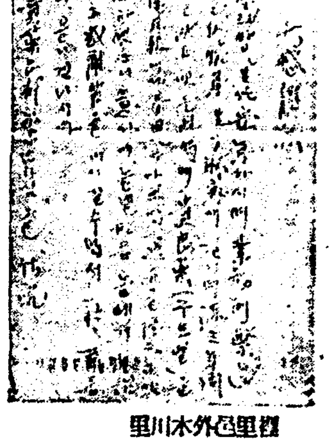
龍川郡內中面所館 龍産藥業社 李亨根

림진환자에게 시용한비 효 룡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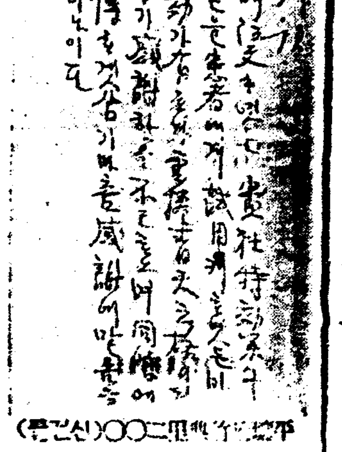
長羅郡苦羅市共濟醫院 鄭祐鉉

귀당일보에서 보고 약을 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理里邑外木川里 趙一文

환지에게ㄱ용하이 모다나어서 감사하게선전하는중



[illegible]〇〇二里[illegible] 李延格

爲替安定은反對 低金利는景氣恢復

③ 옥쓰포드大學 핸더손氏論文

이小論에잇서 나는 英國의輸出貿易이『스타-링』의低落으로부터 밧는競爭上의 利益이며『스타-링』의金價値를一段變更하야 우선國內物價를 引上하고 다음에安定식히는 手段等에對하야는 論하지안햇다。此等事項에對하야는『로빈스』敎授其外의 安定論者들과 全然同意見이다。一九二五年에 英國이 戰前의水準대로 金에復歸하엿슬때 磅은比較的 高價인것、따라서 그때문에 輸出貿易은 損害를밧는等에 對하야彼等은 나와가튼 意見이엇다。그러고現在『스타-링』이 金通貨에 對하야 顯著히低下되엇고 最近一、二年後의 弗에對하야는 如何히될는지 알수업는點等도 나는 彼此에貫成하는바이다 또磅의低落이이미競爭上 그리不利한 地位에잇는것도 아니며 自己의 地位를 向上하려는 道具로서使用하는 政策은 無益이며 近視眼的이고 또國際債權의 侵犯이라고 하는點도 一致되는바이다 또英國은 重要한 世界市場이기때문에 磅의 金價値低落은 一般的으로는『스타-링』物價를 올린다기보다 도리어 金物價를 低下식히리라는點도 同意見이다 從하야『스타-링』의 金價値를 變更하야 物價引上을 하거나 國內景氣의 改善을 하려고하는것이 正當하지 못하다는데도 貫成이다。一九三一年以來 英國政府는 한번이라도 이런非難을바들 政策을取하엿든지 全然업다고 나는記憶하고잇다。

×

그리고 나는 金에 對하야『스타-링』이 更히低下하는것을 希望치안는다。實際에잇서 經濟의範圍內에서 現在내가이것을記述코잇슬때에 마침그것이 이러난것과가티 金에對하야『스타-링』이 多少强味를띠는程度가 조타고 생각된다 適當한 爲替比率의 協定이되면 爲替平衡資金의 協力作用에 依하야 될수잇는대로 長期間爲替率을 水準에 釘付식히는데 나는反對하지안는다。이때문에爲替政策에 依하야 國內信用의缺乏을 惹起식히지안는 方法이면조타。그러나 實際問題로서는 나는 現在는 適當한爲替比率이 나오지못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計劃을 主張하지안는다。나는『로빈스』敎授와가티 弗과 法郞間에큰差가잇슴에 依하야 生하는 幾多의 困難을無視할수업다。從하야 大陸金通貨國이 現在의 平價를放棄하기까지는 試驗的인 爲替釘付操作도實行되지안흐리라고 思한다 合理的 爲替市勢에 到達하면 英著『스타-링』이 軟弱할때마다 爲替利率을 引上하지만안흐면 爲替市勢를 維持식히고저 하는데로 貫成이다 이것을 爲替安定이라고 불러도 無關하리라고 思한다마는 安定論者의 意味라는安定과는달으다。

×

以上을 要約하면 나는 爲替市勢를 適當한 位置에 安定식히는 自體는 조흔 일이나 나는 그것보다도 國內景氣의 磐石이라는것을 重要視한다。爲替安定을 爲하야 國內景氣를失함은 愚이다。그리고 國際間의 指導的 立場에 立하얏다하야 이不利를 敢行하여야할 義務가 업슬것이라고 思한다。나의 이러한생각은國內景氣와 國際貿易發展의可能性을 比較秤量한 結果에基한것으로 이點에잇서安定論者와見解가 相異한 根本點에觸케되다 一方으로 安定論者는 國內景氣의 發展可能性에 아즉 잇지도 안흔剩餘은 放하고他方에人은 賢明한 手段만取하면 十九世紀의 世界가 再現하야英國의輸出이 大戰前狀態로 恢復한다는 꿈과가튼 希望을 가지고잇다。大戰後로부터 一九二九年에 至하는 十個年은 決코貿易이 異常히制限되엇던 時期가아니요 世界貿易이 事實로 增加하얏다。그러나 英國의 輸出은 顯著히 減退하얏는데 이는 主로 經濟事情이 英國의 石炭業에 不利케되고 一方 亞細亞地方의 競爭品이 東洋市場에서 英國 綿製品에 代한 때문이다 이 傾向은 아즉도 繼續되고잇다 또 通貨가 安定되어도 大戰後 種類의 自由로운 國際貿易은 回復될 可望이 極히 적다。

×

勿論 英國은 大體의 海外貿易이 아니고는 生活할수 업다 이點에서 注意할것은 英國海外貿易의 本格的 部分을占하고 잇는것이 農業國과의 貿易으로 國際的 分業의 利益이 가장 明瞭히 나타나잇고 또 그中의 大部分이『스타-링 增域』에 屬하야잇는것이다 近年此等 國家에의 輸出은 漸增하고잇다 그리고 더욱 增되리라고 생각된다 이貿易을 無視하야서는 안된다。貨幣政策으로 말하면 國內景氣의 發展을 促進하는 條件이 또한 가장『스타-링』諸國과의 貿易을 促進함에 힘이잇다。그러나 金復歸貿易은 勿論하고 輸出貿易이 前者의 繁榮을 回復키는 不可能하다。그러타고하야 國家的 衰退를 이르키게하거나 生活水準을 引下하려는것은 아니다。英國은 國內經濟活動을 擴張치 안코면 大量의 人口를 永久히 失業케 하게될 것이라는 것이다。나는 이 國內經濟活動의 不斷한 擴大야말로 가장 必要한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 그와 矛盾되는政策은 避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다。(終)

産業統制本舞臺로 自治統制가原則

朝鮮臺灣等에도適用하자 經濟聯盟建議案內容

【東京電話聯合】現行重要産業統制法은 明年八月로써 期限이到來될것임으로 日本經濟聯盟會에서는 今年三月以來 産業統制調査委員會를 常設하야 各重要産業別로 調査硏究하든바 最近에 委員會原案의 作成을 끗냇슴으로 二十六日 理事會를열고 右原案을 附議決定하고 二、三日中 總理、大藏、內務、外務、商工、拓務及 農林의各相에 建議키로 되엇는데 意見書內容은 다음과갓다

一、産業統制는 自治統制를 原則으로하고政府는 産業의 自由發達을 阻害치안코 또公共의利益에 背馳가 안되는範圍에서 그統制를 助長할일

一、外國貿易에關한 産業統制는 彈力性을 保持하고 또貿易行政機關의連絡을 一層緊密히 할 必要가 잇는일

一、産業統制法規와 그運用을改善하고 統制法規를 朝鮮、臺灣、樺太等의外地에도 適用할일 其他인데 特히注目을끄는點은

一、公益擁護規定强化를 前提로 現行重要産業統制法은 이것을 明年九月以後도 存續케하기로 할일

二、內閣에 直屬하는 權威가 잇는 産業統制中央委員會를 設置하고 産業統制에關한 行政方針의 不一致를 調和케할일의 兩點이다

『세멘트』統制問題

朝鮮內需給을考慮하라 ◇……總督府에서回答

【電通東京電話】日本세멘트工業改善委員會에서 可決한 세멘트統制에 關한 答申案은 朝鮮問題에 關하야 小野田社長 笠井委員으로부터 留保條件을 附하엿스나 二十六日 午後 笠井委員은 商工省에 岸工務局長을 訪問하고 이것을 拒絕하엿다 即小野田은 答申案을 受諾함에잇서

一、朝鮮에서도 日本內地에 準하야 限産率을 適用할일

一、朝鮮內地間의 세멘트移入數量協定

一、販賣價格協定

의 各項目에 關하야 朝鮮總督府의 同意가 잇스면 이것을 受諾할 旨의 保留를 附하엿슴으로 商工省에서는 朝鮮總督府의 意向을 드럿든바 最近 아레와가튼 回答이 잇섯다 그래서 商工省에서는 總督府가 同意를 表明한것으로 笠井委員에 對하야 正式受諾을 慫慂하엿든바 笠井委員은 이에對하야 解釋을 달리하고 右回答은 朝鮮의 需給을 考慮하여달라고 하엿다 그러대 朝鮮에서는 小野田의 川內、平壤兩工場이 運轉치안흐면 需給의 圓滑을 缺할念慮가잇고 따러서 日本內地와 同樣으로 限産率을 適用함도 反對하다는 見解를 取하고 保留條項을 正式으로 拒絕한것이다 그러나 商工當局으로서는 拒絕에 對하야 아즉希望을 失치안코 今後繼續하야 折衝할 意向이다 그러고 朝鮮總督府의 回答은 다음과갓다

總督府는 當業者의 協定에 依함 答申案의 趣旨에 副하드래도 朝鮮內의 需給에 對하야 特히 考慮하기를 바란다

肥料都賣同業 組合組織

反産運動先驅

【電通東京電話】東京肥料商協會에서는 二十六日 午後 深川의 同事務所에서 役員會를 열고 肥料商의更生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肥料都賣同業組合을 組織키로 決定하고 來月六日 다시有志會를 열고 이것을 正式決定한뒤 商工省에對하야 正式으로 設立認可의申請이 잇기로되엇다 右同業組合의 主要한事業으로는 統制肥料共同購入을 하게되엇고 右組合은 全國的肥料商組合聯合會設置의 基礎가 될것으로 이로因하야 反産運動는拍車를 加케될것이라고 한다

殖産契令! 八月中旬公布

今年度六十契設置

殖産契令은 法制局審議에 드러가 느저도 八月上旬 脫稿하야 中旬에 公布할 豫定으로 金組下의 事業活動開始는 十月부터로 豫想하고 大體契設置는 十年度約六十의 豫定인데 그事業指導의 方面에서 가장注目을하는것은 總督府理財課의 指導方針으로 從來의 産組事業의 缺損과 不振은 歸一하는바가 組合이 企業經營을하는 點에잇고 딸어서 今後의 契는 斡旋機關으로 手數料主義일에 經營케한다는點이며 斡旋指導와 手數料主義를 標傍하는바 이發展은 殖産局의 産組와 商工組合과 對照하야 그發展은 注目된다

大阪紡聯의 增錘統制案

委員會의決定大綱

【電通大阪電話】紡績聯合會는新錘對策 委員會에서 過去의增錘及將來의增錘에 對한 制裁方法의 大綱에 對하야 成案이 되엇든바 그 內容은大要 알에와갓다

一、過去의增錘에 對하야 現行規約에依하면 新錘運轉後 最初의 三個月間 그當時의 操短率의 三倍를 後三個月間은 二倍를 課키로 되엇고 六個月로써 新錘의 觀念이 消滅한것인데 오늘까지의 增錘分에 對하야 이미 右規約에 依하야 操短率加重의 義務를 負擔함으로 새로히 制裁를 加함은 二重制裁가 됨으로 現狀의規約을 遵守할일

二、將來의 新錘에對하야는 操短義務의 現行規約 以上으로 加重함을 原則으로하고 이將來의新錘時期는 昭和十一年一月以後로할일

三、現行規約에依하면 既設工場을擴張한境遇는 擴張에 依한 新錘에對한 操短加重分을 舊錘로振替할수잇스나 新設工場의境遇에는 달흔既設工場에振替할수업다 既設工場 擴張의 境遇에도 新錘操短率은 新錘로 課할일

右新錘對策의外 操短方法에 關하야는 改正意見이 提出되엇슬뿐만 아니라 特別委員會案 反對論도잇서 決定까지는 相當한波瀾이 잇슬것으로 觀測되는데 本大綱案은 二十九日 再開할委員會에附議될터이다

全購聯의 職權改革

組織統一確立

【電通東京電話】全購聯에서는擴充五個年計劃에 依하야 躍進의途上에잇고 各事業도 發展되고 보고 組織內容을 刷新하야 八月一日로부터 시작할 第三年度에 一層躍進擴張을 圖함을協定하고 지난 四日로부터 二日間 役員會를열고 協議한結果 압에와가튼 職制改革을 確立키로되엇다

一、東京事務所를統制本部로하고 大阪本部를支所로하고 各出張所駐在所를 모두 東京本部의 管下에置할

一、새로히 監督部를設하고 各業務의 監査監督을 嚴重히할 그러고 監督部長으로는 大阪駐在의 同專務理事로 內定하엿다

綿布輸出高 六月中激減

【東京電話聯合】六月中의 綿布輸出高는 二億六十三萬八千八百二十二碼로 前月에比하야 三千二百九十八萬八千七百六十八碼、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千百八十五萬九千七百七十一碼의 各激減이엇다 向地도 香港印度를除한 諸所가 一齊히 減退하고 그中滿洲는八割 中國은九割의 未曾有의激減이다 이것은 銀價低와在華紡의 滯貨로因한外 北中問題의 特殊原因이잇다 그러고 今年前半期綿布輸出高는 十三億八千四百五萬八千三百四十四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億二千四十六萬八千三百三十七碼의 增加이다

外鐵輸入의 協定이成立

◇……正式으로調印

【電通東京電話】日本製鐵共販脫退後 日滿製鐵統制問題로는 外鐵輸入을 圍繞코 紛糾하얏는데 二十五日 日本製鐵과 滿洲側間에 外鐵輸入의 協定이 成立되어 正式調印되엿다

朝鮮殖産債券 一千萬圓發行

【電通東京電話】朝鮮殖産銀行에서는 二十七日 第百六十三回殖産債券 一千萬圓을 新規發行키로 決定한바 그條件은 알에와갓다

一、總額=一千萬圓

一、利率=四分三厘

一、償還方法及期限=十五年、但 昭和十三年九月一日까지 据置後 十二個年에 每年期二十萬圓以上 抽籤償還

一、利拂期=三月一日九月一日

一、申請期間=八月十二日부터同十五日까지

一、拂込期限=昭和十年八月二十八日

一、元利金支拂場所=朝鮮殖産銀行

一、引受店=山一、藤本、野村、小池

『낄다』貨落調滔滔

和蘭의金流出不息

【암스텔담二十六日發聯合】和蘭으로부터 米國 佛國向 金의流出은 二十六日도안끄치고 法貨止價보다 다시떨어젓는바 이것은 强氣側의 策動을防止할수업는 貨이나 모든現送點을 上하는것으로 그趨勢가 注目된다

鮮航會機能喪失餘波

自由積取、積荷爭奪로 荷爲替取扱嚴重 空券防止코저銀行警戒

【鮮航同盟會】의機能停止後 各船會社의 積荷爭奪은 同盟會結成前과가티 相當히激化함은 必然的일로 그結果 集荷關係上 各船會社 代理店이 同盟會結成前과가티 荷主에 好條件을 極秘裡에 換出케될 이結果 반드시 空券問題를 惹起할 念慮가잇서 이로因하야 八月一日以後 各關係港 所在組合銀行은 協議한뒤 荷爲替의 取扱을 嚴重히 하게 되엇슴으로 이方面의 金融은多少 不圓滑을 免치못할 모양이라고 한다

朝郵新運賃 三十日發表

現行과無大差

朝鮮郵船에서는 八月一日 自由積載開始後의 新運賃을 設定하라고 目下 各港代理店에 여러가지를 協議中인 三十日에 正式으로 發表케되엇는데 現行運賃과 큰差가 업슬모양이라고 한다

興業債券借換

【電通東京電話】興業銀行에서는 興業債券一千五百萬圓을 不還債換키로 되바 市場도漸次 好轉하는中이며 利率은 從來의五分을 四分三厘로하고 期限은十五年으로 決定하엿는데 來週中에正式發表가 잇슬터이라고

新銀行法案 米上院通過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米國全國銀行 金融界의 統制를 最後的 目的으로한 新銀行法案은 去五月九日 下院을 通過한 以來上院에서 審議中이든바 上院은 表決을 行하지안코 通過하얏다

今日財界 (廿七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九三一	一〇低
大阪期米 先限	三〇九七	三〇低
京三等米 一石	二九八〇	不變
京畿一等白米 一叺	一三〇〇	不變
正租(仁川)改良 一斤	八錢六厘	
在來	八錢五厘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二圓六十錢	十二圓五十三錢
銀	二十八錢〇錢	二十四錢五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五四〇	不變
東新	一三四五〇	一〇〇低
日産	六七九〇	五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〇〇四〇	二〇高
大阪棉花	五九五〇	三〇高
大阪人絹	五六九〇	八〇高
大阪砂糖	一二八〇	五高
고무現	三八錢四〇	先三六錢四〇

商況 (廿七日)

株式 肺患惡質 漸落

前增頹勢 昨後場低落의 뒤를이어 今前場은 休日을압두고 帝人、日魯等 人絹株와 日魯株等의 頹勢를 보고 全面的으로 不勢를 呈하야 嫌氣賣物을 呼하야 東新百三十四圓九十錢 日産六十七圓五十錢 大新八十三圓八十錢 朝鮮二十五圓三十錢에 떠러지고나서 下潑少縮裡에 大引되어 悲觀肺患的 市勢이엇스며 日魯五十八圓四十錢 帝人百六圓五十錢 日鑛新三十五圓二十錢 三菱新五十三圓丁 朝運三十二圓丁 西合新十八圓二十錢 拓新九圓八十錢 殖銀新三十五圓十錢이엇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休會 大阪短期氣配堅保이나 當地는 後場은例休인데 不變으로 弱含이엇다

前途樂觀尙早 東京의 前途樂觀論을 들어보면 所謂 財界悲觀論은 陳腐하며 米國의 好況이라던가 農村經濟라던가 前에 比較하면 相當한餘力이 생긴것이 注目되며 現在肥料會社의 資金回收率等은 意外로 順調로서 地方銀行이 預金漸增의 勢이것도 此間의 事情을 잘말하는것이라 勿論 早急히 超勢投資로 向해오지는 안컷스나 적어도 政府에 幾分明朗性을 보이기만 하면 早晩一振이 잇슬것이다 大阪方面은 纖維工業界가 暗雲低迷임으로 貿易悲觀이 市勢에 織入되어잇스나 最近 綿布輸出이 減退되엇다지만 前年同期보다 一月以降 三、四月頃까지는 增加하엿고 究竟 英國의 關稅에對한 日本品의 壓迫이 어느程度로 成功하는가 問題이고 今後 外交交涉에 依할것이오 米國의 銀價對策의 强味는 종자을 制하야 齊藤키만 하면 큰問題가 안될것이다 一方에는 生絲暴騰、米國景氣恢復이 잇스며 藏相의 公債政策도 穩健한 聲明으로서 公社債의漸騰等으로 보아 此際株券에도 決코 惡影響이잇슬것이아니고 現在優良株와 主力株에有力側의 指値買注文이 無數히伏在한 實情으로보면 市勢의 方向은 넉넉히 推測할수잇다하나 雜株層에 部分的不勢가 繼續될뿐아니라 日前買氣를 刺戟식힐것이니 아모리 强氣를 云爲하나 市勢는 柔弱을難免인모양이다

軍需株買餘地

實際的再檢討

數個月前까지는 事業株에對하야 그前途를 悲觀하고 합부로 賣叫하얏섯스나 投資又는 投機家가 事業內容과 그將來性에就하야 實際的再檢討를 試하는모양이다 軍需株乃至重工業株의 將來性(投資價値)은 十一年度乃至其以後의 軍事豫算增減과 密接한關係가잇는데 十一年度豫算에 陸海軍新規要求가 相當한 巨額에 過할모양이오 海軍은勿論陸軍도多少增額을 難免이겟스니 重工業乃至이다 直接關係가 잇는利益關係로 相當한 實際增加가 잇슬것으로 보힌다한다

市場六感

株 大局的方針은 全般好轉은 時期遲遲이며 堅實한國內産業株買에 輸出産業株類의 凸凹市勢로 打診하는觀測이 만흔모양 ▲東新은 百三十四圓讓로 日産六十七圓讓로 大新八十二圓讓로 漸落頹勢 ▲雜株가 部分的으로 흔들리니 主力株도 할수업는일이라 ▲이왕이면 떨하고突込이나 하여라 ▲和蘭國銀의 緩縮利上은 金本位維持困難을 意味하야 그危機가 迫到하고 歐洲金通貨는 財政難과共히 再動搖의兆가濃厚하야 不安이 큰一面 米國內財況은 好轉氣味로 外材도凸凹 ▲凸凹裡 떠러질것은 시원스럽게 떠러지기나하여라 그래야 底入이되겟스니……

米 當地는 阪地보다制限이오 阪地는 東京보다割高! 仕手의 關係도 업지 안켓지마는 大體의原因은 在米의品薄이엇다 ▲阪仁의 鞘가 百六十丁이나 縮少되엿스니 取鞘賣上도當然할듯하나 그러나 天災戰災인마큼 探算만을 따질수가업는걸 ▲昨日大邱市勢는 三十圓八十八錢 新瀉縣市勢는 二十八圓八十錢으로 大邱가 二百丁以上의 上鞘를 示하엿스니 그原因은무엇? ▲此를 全혀 仕手의關係로 볼수도업스니 結局稻作의良否를 딸아 그러한모양 ▲新瀉縣은 稻作狀況이 良好하고 大邱地方은 稻作이 不良 ▲貴로朝鮮의 穀倉인 南朝鮮一部가雨量不足으로 植付를 完了치못한곳이 多하고 中部以北은 水害가 不少한 모양이니 結局朝鮮은 平年作이될락말락한狀態 ▲그러나 日本內地는 全般的으로보아서 比較的良作인모양이니 無謀히買進할수도업는걸 ▲何如間 今後天候가 順調되는때는 此邊의 高價가天井일지도 亦未知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六	五三	五一、一三〇
東新	四二	五〇	七五、四〇〇
大新	三三	五九	七六、五六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朝日麥酒 [illegible] ▲日滿아루미 二[illegible] ▲金剛山電鐵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朝鮮石油 三三〇 ▲北鮮製紙 三三〇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四、二五 ▲一 四分利 不申 ▲二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期米 反弛이나 底堅

前場低落 昨後場 阪地三十一圓〇九錢止와 共히 二十九圓四十一錢에 場를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九十七錢인 十二丁 反落을 報하고 二十九圓三十錢인 十一丁反落으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九十一錢으로 三十一圓까지 返戾하엿다가 三十圓九十五錢에止場함을 伴하야 三十八錢까지昂騰하엿다가 結局 三十二錢에場을 止하엿다

後場底堅 後場은 二十九圓三十一錢에 一丁低로 始場後 四節二十五錢에 떠러지고 中限도 三十圓割이다가 五節三十錢으로 底堅하야 下潑裡 別關가티止場하다

品貫의底堅과 公定價의威壓

阪地는三十一圓四十二錢 當地는 二十九圓八十錢의高價를 示한後 五六十丁의反落을 告하더니 低價에는 賣方의警戒로 下潑狀態를 寫하면 뭇한다 그原因의所在를 窺하면 阪地先限三十一圓四十二錢을 示할當時의 當限은 三十二圓으로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하엿슴으로 買方으로서 賣入的行動을 加하지못하고 警戒自重하는 한편으로 賣方主力側인 阪地田中眞一派의 七萬七千餘石이나 其實은 十四萬石에 達하는 巨大한 數字로서 賣方主力側으로서의 整備한 삼이 三萬五六千石에 止할뿐으로 其他는 大槪空殼賣에 不過한모양이다 그럼으로 買方이 어데까지 버틴는 때는 적어도百丁反撥인 三十三圓까지 昂騰할수잇스나 그러나最高公定價에 接近한 市勢인 만치 買方으로서도 買進을 警戒하는 모양인데 目前의 形勢로 보아서는 買方은 旣히優勝權을 가지고 잇는마큼 利潤을 비롯하야 其他賣方의 聲戰이 展開되어 그以上의高價는 許하지안엇고 一段反落을告한後부터는在米의品貨를 背景한賣方이 또한 積極行動을 하지못하고 警戒하는 一方 賣派의 押目買로 容易히 滑落을 許하지못함으로 結局市勢는 公定價의威壓과 品貨의底緊으로 保勢를 示할뿐이다 그럼으로 今後의大勢는 天候의如何로서 左右할모양?

颱風發生!

沖繩附近警戒

【東京電話聯合】中央氣象臺發表 小笠原島의 南西南의 海上에 猛烈한颱風이 發生하야 北北西乃至北東으로 進行中氣壓은 七三〇粍、七六二、三三〇粍에 發達할지도 몰라 沖繩大東列島、奄美群島方面은 警戒를 要함

阪當決戰注目

渡米調達如何

三十二圓大新臺를 中心으로 稍高稍弛하는 阪地當限은 압흐로 納會期日이 臨迫한 今日에 將次如何한結果를 招來할지 注目할 必要가 잇다 그表面의 取調는 買進을 覺悟하게될지언정 個退는 아니할모양이며 賣方으로는 渡米의 調達이 如意치못한만큼 結局引退하고야 말것인으로 當限의 決議은 三十二圓以上에서 納會되지 안흘가한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吉川 米 福 取引店

各地正米

京城不變 動搖待로 雙方傍觀이오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同 實行不立으로 買方이 氣乘薄이오 賣側 必需的 買望으로 小口取引이 잇슬뿐인 ㊉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五錢

釜山保合 市場貨物三千叺 産地高와 品薄顯著로 市況이極히 頑健하게推移되나 高價警戒로 買氣不起이오 依然當用必需的 買望뿐으로 取引一九〇叺의 閑散場面인 角フ三等三十圓七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大邱不變 大農側에 所持가 잇슬뿐이고 市中在庫는 全혀 拂底모양으로 穀物杜切이오 取引皆無閑散商狀인 角フ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群山小弱 拂下成績 良好와 月末의 米穀委員會結果待等으로 日本內地의 買氣가全無하고 淸算低로 場面이沈靜狀態에 陷하야 氣配五錢低唱인 菱ク三等二十九圓九十錢四等二十九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不動 拂下成績 良好等으로 日本內地의 入注가全혀絕望狀態이나 品薄이甚한마큼强堅한 形勢인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十錢 雄町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南浦强含 原料正租高와品薄深刻으로 市況이頑强하게 推移되고 ㊉稻尾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賣進을 覺悟하게될지언정 個退는 아니할모양이며 買方으로는 渡米의 調達이 如意치못한만큼 結局引退하고야 말것인으로 當限의 決議은 三十二圓以上에서 納會되지 안흘가한다

金融 (廿七日)

◆海外經濟◆ (廿六日) 倫敦金塊 七磅〇志六片二分一 [remaining figures illegible]

◆朝鮮銀行券◆ (廿六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廿六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七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카가요期麥◆ (廿六日) [illegible]

◆鰯油沖價◆ [illegible]

◆鰯搾粕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廿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廿七日)

◆朝取期米◆ 前場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後場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illegible]

◆朝取期米受渡高◆ [illegible]

商品 (廿七日)

◆大阪綿絲◆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糖(S.T.) 賣買中價 二一・〇〇 [remaining figures illegible]

◆海外砂糖◆ (26日) 紐育 爪哇 倫敦 [illegible]